

實在論과 眞理概念 : Putnam 과 Dummett. *

이 병 육

목 차

<p>들어가는 말</p> <p>I. 실재론과 진리 개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재론과 형이상학 2. 실재론의 진리 개념(I) : Putnam 3. 실재론의 진리 개념(II) : Dummett 4. 진리 임여설과 실재론 <p>II. 의미-이론과 반실재론 : Dummett의 실재론 논박</p> <p>III. 지시론과 반-실재론 : Putnam의 실재론 논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Putnam : 실재론자로서 또 반-실재론자로서 	<p>2. 비표준적 해석과 지시 관계의 기확정성</p> <p>3. 물리주의와 지시 인파설 : 그 비판</p> <p>4. 후천적 실재론과 그 비판</p> <p>IV. Putnam의 실재론 논박(II)</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각에 의거한 논증(argument from illusion)과 실재론적 진리 개념 2. 동등한 기술 체계들과 구조 실재론(equivalent descriptions and structuralist realism) <p>V. 반-실재론과 진리 개념</p> <p>맺는 말</p> <p>참고문헌</p>
--	---

들어가는 말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거의 실증주의의 한 개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다.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것과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것의 구별이 논리 실증주의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¹⁾ 이런 논리 실증주의 자체가 어떤 형이상학적 입장에 근거한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형이상학적인 것을 인식의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 자체가 한 개의 형이상학적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초기의 논리 실증주의는 현상론(phenomenalism)에 입

* 本論文은 1983 年度 碩士學位 論文임.

1) 이처럼 논리 실증주의를 Hegel 류의 형이상학에 대한 반발로서 이해하기보다는 독일 과학 철학 내에서의 문제 상황을 강조함으로써 논리 실증주의를 이해 하려는 시도로서: F. Suppes, "The search for philosophic understanding of scientific terms," of ch. I i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Theorie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77) 이 있다.

각하고 있었으며, 그 후 논리 실증주의의 전개도 이런 입장으로부터의 질적인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물질적 대상(material objects)의 존재를 부정하는 현상론을 포기한 논리 실증주의가 이론 / 관찰의 양분법(observational - theoretical dichotomy)에 입각해서 과학이 “발견”하는 이론적 대상들(theoretical entities)에 대해서 도구주의(instrumentalism)의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이 입장은 초기 현상론이 수평 이동한 것이라 생각된다.

형이상학이 어떤 분야인지에 관해서는 매우 막연한 정의 밖에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재론과 유명론, 실재론과 관념론의 논쟁은 형이상학적 논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현상론은 바로 영국 관념론이 J. S. Mill에 와서 정형화된 것이다. 논리 실증주의가 입각하고 있던 현상론 / 도구주의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고, 그 결과 van Fraassen(1980, 229)이 목격하듯 과학적 실재론의 “기하 급수적 증가”를 보았다.

여기서 실증주의와 과학적 실재론의 장단점을 논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떻게 해서 형이상학을 철학의 영역에서 몰아내었던 논리 실증주의의 다음 세대들이 형이상학적인 문제들을 복귀시키고, 실증주의자들 자신이 이런 논쟁의 와중에 휘말려 들게 되었는지를 언급하고 한 것 뿐이다. 실증주의적 철학관과 형이상학 사이의 반목이 두드러지는 자신의 논문²⁾에 불인 1957년의 후기에서 R. Carnap은 이 논문에서 쓰인 “형이상학”이란 말이 “여러 학문(science)의 결과를 종합하고 또 일반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실증주의와 과학적 실재론 사이의 논쟁이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실증주의의 형이상학관이 지나치게 좁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여기서 대두된 문제가 곧장 형이상학의 문제라고 속단하려는 것은 아니다. 실재론이라 불리는 입장들이 어떤 단일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른다. 중세의 보편 논쟁에서 나타나는 실재론과 근세의 관념론에 대립되는 입장으로서의 실재론은 우선 그 대상 영역을 달리한다. 전자에서 문제시되는 것이 보편자(universals)의 실재성(reality) 여부에 관한 것이라면, 후자에서는 관념(ideas, 바꾸어 말해서 지각 작용sensations)에 대립되는 물질적 대상(material objects)의 실재성이 문제시된다. 또 수리 철학에서 논리주의와 직관주의 및 형식주의의 대립을 추상적 대상(abstract objects)의 존재론적 지위에 관한 Platon적 실재론과 개념론(conceptualism) 및 유명론(nominalism)의 논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도 있다.³⁾ 전자의 대립이 중세의 보편 논쟁과 정확하게 대응되는지에 관해서 의문을 던지는 글도 있지만,⁴⁾ 어쨌든 여기서도 한 개의 실재론 논쟁이 대

2) “The elimination of metaphysics through logical analysis of language,” tr. in: *Logical Positivism*, ed. by A. J. Ayer (The Free Press, 1959), p. 80.

3) Quine, W. V. O.: “On what there is,” rp. in: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Harper & Row 1953).

4) Dummett (1981), ch. 14. Frege의 영향이 드러나는 추상적 대상과 구체적 대상(concrete objects) 사이의 구분이 Aristoteles적 구분—개별자와 보편자의 구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근거에서이다.

두한 것이다.

앞에서는 현대 과학 철학에서 실재론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을 밝혔고, 수리 철학에서 대두한 실재론의 문제도 언급했다.⁵⁾ 이런 문제들이 고유한 의미에서 형이상학의 영역에 속하는지에 관해서는 답변을 보류하려고 한다(다만 경험적인 작업과 형이상학적인 작업 사이의 관계가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생각과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할 뿐이다). 실재론이라는 명칭 자체가 여러 상이한 입장에 대해서 적용되어 왔다. 그래서 우선은 보편자에 관한 실재론, 물질적 대상에 관한 실재론, 이론적 대상에 관한 실재론, 추상적 대상에 관한 실재론, 심리 현상에 관한 실재론, 또 시-공에 관한 실재론이 있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게다가 일종의 환원주의자인 행태주의자들(behaviorists)이 심리 현상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보여주듯이,⁶⁾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실재성”을 다루게 된다. 그렇다면 여러 실재론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실재론파(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한다면) 반-실재론(anti-realism)의 논쟁들이 어떤 구조적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가? —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이 문제들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실재론의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즉 “실재론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대답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탐구에 근거해서만이 과학적 실재론의 형이상학적인 위치에 관한 문제도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⁷⁾

M.Dummett은 실재론의 문제를 이처럼 포괄적인 관점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우선 특기할 만하다. 그에 있어서 비로소 “어떤 종류의 대상들이 실재하는가?”라는 물음에 앞서서 “실재론이란 어떤 입장인가?”라는 물음이 철학의 관심사로서 부각된다. 그의 해명에 따르면 실재론이란 “진리 조건적 의미-이론”(truth-conditional theory of meaning)⁸⁾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점을 잠정적으로 지적해 두자. 여기서 이미 암시되고 있듯이, 그는 실재론의 문제가 언어 철학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다. 우리는 현대 영미 철학에서 실재론의 문제가

5) 그리고 실재론의 문제가 어쨌든 형이상학적 입장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논리 실증주의의 irony를 암시했다.

6) 사실 Berkeley는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고 물질계의 “실재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유일한 입장이라는 근거에서 자신의 판념론을 옹호하고 있다.

7) 여기서는 과학적 실재론을 형이상학적인 의미에서의 실재론으로 해석(또는 연장) 하려는 입장이 있다는 점만을 지적해 두자 : 예컨대, 현대의 유물론 철학인 물리주의(physicalism).

8) Dummett이 “theory of meaning”이라고 부르는 것을 Putnam은 의미(meaning)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Putnam 특유의 언어판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 글에서는 이 둘 사이에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Dummett의 입장은 논할 때에도 종종 “theory of meaning”이란 용어 대신 “theory of understanding”이란 용어를 사용하겠다. Dummett의 용어들은 번역상의 문제가 있다. 이 글에서 사용할 표준 용어는 다음과 같다 :

(Dummett이 사용하는 의미에서) theory of meaning : 의미-이론

semantics : 의미론 또는 형식 의미론

theory of sense : 뜻 이론

대두하는 두 번째 영역을 보고 있는 것이다.

우선 실재론이 어떤 입장인지를 밝힌 Dummett은 “특정 대상 영역에 관한 실재론”이 아니라 “실재론 일반”(realism in general)이 가능한지를 묻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는 논증(argument)을 제시한다. 이 작업의 의의는 예컨대 보편 논쟁과 비교해 보면 설명해진다. 보편 논쟁에서는 보편자들의 존재론적 지위가 문제시된다. 개별자들은 는 외다. 여기서는 개별자들의 실재성을 전제하고서, 보편자들이 실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지위를 험유할 수 있는지가 문제시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른 여러 논쟁들도 대부분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점은 전통적으로 환원주의가 실재론의 대안이라 생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분명해진다. 이 전통적인 전제가 옳다면 전반적 반-실재론(anti-realism)이란 모순된 주장이 아닌가?⁹⁾ 그리고 특정 대상 영역에 관한 실재론 논쟁에 있어서는 환원 프로그램의 실패를 지적함으로써 실재론은 너무 손쉽게 승리하게 된다.¹⁰⁾ 반면에 Dummett은 환원주의가 실재론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의 반-실재론은 직관주의 수학의 모형을 일반화시킨 비-환원적 반-실재론이다. 게다가 Dummett의 연구에 따른다면 환원주의가 반드시 실재론에 대립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Dummett의 철학사적 의의는 소박한 실재론(naive realism) 대 환원주의의 대립과 실재론 대 반-실재론의 대립을 구분해 내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과학적 실재론의 가장 중요한 응호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H. Putnam은 부분적으로 Dummett의 작업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많은 부분에서 Dummett과 일치하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과학철학 및 의미론에서 자신의 작업을 실재론에 근거한 것으로 특징지운 Putnam이 자신의 실재론의 골격과 근거를 제시한 것은 1976년에 쓰여진 “Reference and understanding”(Putnam 1978c)에서이다. 여기서 실재론은 진리 대응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특징지워지고,¹¹⁾ 경험적 가설(empirical hypothesis)로서 응호된다¹²⁾; 실재론은 언어 사용자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언어 외적인 대상과 가지게 되는 관계—지시관계(reference relation)—를 설명 모델의 일부로 사용해서 “과학의 수렴”(convergence of science) 및 “언어 행위의 성공”(success of linguistic behavior) 등의 경험적 사실을 설명하는 고차적인 경험적 가설(over-arching empirical hypothesis)이다. 이런 사실들에 대한 설명력에 있어서 실재론이 다른 형이상학적 입장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줌

9) McGinn(1979)의 실재론 응호는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에 근거한다.

10) Quine의 “불가결성에 의거한 논증”(indispensability argument)는 이런 각도에서 실재론을 응호하고 있다. 환원주의의 실패에 착안한 논리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Quine, “Two dogmas of empiricism,” ch. 6, rp. in: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Harper & Row, 1953) 참조. 또 Quine의 불가결성에 의거한 논증을 가장 상세하고도 포괄적으로 제시한 글로서 Putnam(1971) 참조.

11) 진리 대응설이 무엇인지는 좀더 설명을 요한다.

12) 따라서 Putnam(1978c)은 실재론의 문제에 관한 경험적 접근 방식의 한 표본으로 볼 수 있다. 물리주의자들의 실재론 응호는 바로 이런 골격에 의거하고 있다.

으로써, 실재론을 옹호할 수 있다.

상기 논문은 적어도 실재론의 문제에 관한 한 Putnam의 전기 입장을 총결산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기본 전제는 “정합 관계가 지시체를 결정할 수 있다”(coherence can determine reference ; 1976b, 164 ff)는 지시체 결정 이론이다. “외부 정합성”(external coherence)과 “내부 정합성”(internal coherence)에 따라서 어떤 이론이 옳은지가 결정되고, 옳은 이론 체계 즉 법칙들의 총체¹³⁾가 결정되면, 거기서 사용된 단어들의 지시체가 결정된다. 이 입장은 분명히 제시되자 곧 그 문제점이 드러났다(Putnam 1979a 및 1979b)¹⁴⁾ 그래서 실재론을 포기하게 된 Putnam₂¹⁵⁾은 Dummett과 더불어 반-실재론을 옹호하게 된다. 이 글의 주제는 Putnam과 Dummett이 제기하는 실재론 논박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처럼 Putnam₂을 단순히 반-실재론자라고 규정짓는 데에도 상당한 반론이 예상된다. Kant는 자신을 초월적 관념론자(transcendental idealist)면서 동시에 경험적 실재론자(empirical realist)라고 하여, 초월적 실재론과 경험적 관념론의 중도를 걷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에 비견하게 Putnam₂은 자신의 입장을 형이상학적 반-실재론(metaphysical anti-realism), 내적 실재론(internal realism)¹⁶⁾으로 표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글에서는 Putnam₂이 (내적) 실재론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상대주의(주관주의)가 아니라는 것, 즉 그 자신이 말하는 바 “객관주의”(1981b, ix)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본다. Putnam₂이 보여주는 것은 (형이상학적) 실재론에 근거하지 않고서도 객관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Putnam₂이 자신을 내적 실재론자라고 부르는 것은 Putnam₁이 가졌던 실재론의 자취에 불과하다고 결론짓는다.¹⁷⁾ 그냥 내재주의자(internalist)라고 하는 것이 보다 중립적이고 문제성이 없는 표현법이다. Putnam₂의 반-실재론이 소위 “실재론의 직판”(realist intuition)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 직판으로서 옹호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소위 “실재론의 직판”은 과학의 수렴(convergence of science), 현재의 이론이 거짓일지도 모름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 증핵은 Putnam(1979b, 284)에 나타나는 아래 원칙이다 :

13) 지시 인파셜(causal theory of reference)도 이런 경험적 이론의 일부일 뿐이다.

14) 여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Ⅲ장 1절로 미룬다.

15) 따라서 실재론에 관해서 Putnam은 두 개의 상반된 입장을 가지게 된다. 우리는 주로 Putnam(1978c) 이후의 Putnam을 다루게 된다. 간혹 그전의 Putnam을 언급함으로써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전기에 대해서는 “Putnam₁” 이런 명칭을 후기에 대해서는 “Putnam₂”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 단순히 “Putnam”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혼란의 우려가 없이 Putnam₂의 입장을 거론하거나 혹은 양자 사이에 일관된 입장을 언급할 때이다.

16) “경험적 실재론”(empirical realism), “과학적 실재론”(scientific realism)이라는 용어도 쓴다. Putnam(1980, 464)

17) 이와 관련해서 Putnam이 실재론을 포기하는 때에야 비로소 “*inter-linguistic*”(원문 강조)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데 주의할 것 (1979a, 227).

(P) “이론 변화에도 불구하고 단어의 지시체가 보존될 수 있다.” 이 원칙을 받아 들이면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의 과학 이론이 거짓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이론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은 보다 나은 과학 이론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표현한다. 또 현재의 과학 이론이 옳다는 것을 전제하면, 과거의 학문 발전이 같은 대상에 관한 보다 근사한 진리(approximately true)에로의 행진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이 원칙에 주목해 보면, “이론-내재성”(intra-theoretic)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이론-초월성”(trans-theoretic)을 “이론-상호성”(inter-theoretic)과 좁은 의미에서의 “이론-초월성”으로 구분하는 것이 효과적임이 드러난다.¹⁸⁾ 이렇게 구분해 놓고 나면, 원칙(P)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반드시 실재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Putnam(1975c, 236f)은 Putnam₁의 실재론 응호가 이론 내재적 진리개념만으로서는 위 원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서 이론 초월적 진리개념 및 실재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게 보여준다. 또 Putnam₁이 실재론의 대안으로 본 것이 상대주의(relativism)나 협약주의(conventionalism)라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 점은 Putnam₁이 실재론자라는 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Putnam₁이 실재론을 응호하게 된 동기와 그 논증의 한계를 보여 준다.¹⁹⁾ 이 글이 Putnam에 관한 문헌 비평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 채택한 방법론상의 한 결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Putnam은 실재론자로 너무 잘 알려져 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반-실재론에 이르는 Putnam의 논증은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 실재론을 어떤 진리 개념(Putnam에 있어서는 진리 대응설의 진리 개념)으로서 특징지음.

(II) 언어 이해론에서 이 진리 개념의 역할을 배제함: 용도 이론을 받아들임.

(III) 모형 이론에 근거한 실재론 논박(model - theoretic argument against realism)

이 글도 대체로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목표는 Putnam의 실재론 논박을 분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II)의 입장은 Putnam₁이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 하지만, 그 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한 것은 Dummett이다. 또 Putnam 고유의 실재론 논박인 논증(III)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II)의 입장이 이미 확립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Putnam₂의 입장에 관한 올바른 설명은 Dummett을 간파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논증(III)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논증(II)는 그 자체로 이미 실재론 논박으

18) cf. Koethe (1979, 94 n.5).

19) 실재론을 대표하는 Putnam이 Dummett과의 논쟁과 더불어 갑자기(?) 반-실재론자가 된 까닭이 여기에 있다. Putnam의 주된 흐름이 세련된 반-실재론에서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Putnam₁과 R. Boyd에 있어서 협약주의가 실재론의 대안으로 간주된 것이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Margolis (1980)이 강조하고 있다.

로서의 완결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의 목표가 Putnam의 실재론 논박을 고찰하는데 있다고 말하기에는 주저되는 바 있다.

단계(I)에서는 이들의 견해가 상호 영향없이 수렴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실재론 논쟁을 실재론이 함축하는 진리 개념을 망 힘으로써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각각이 제시하는 바 실재론의 진리 개념의 내용에서도 공통된 것을 추출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형이상학적 논쟁으로서의 실재론의 문제를 진리 개념의 차원에서 다루려는 시도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I. 실재론과 진리 개념

1. 실재론과 형이상학

형이상학의 과제는, 우리가 인식하는 대로의 세계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의 세계가 어떤 한가를 말하는 것이다. 그 자체로서의 세계(이하 N-세계로 약칭)가 어떤 종류의 대상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어떤 종류의 대상들이 세계 그 자체에 있는가? — 이런 물음이 여러 실재론 논쟁들의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물질적 대상이 객관적으로 실제로, 정신파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가? — 이 물음에서 “객관적으로”(objectively), “실제로”(really) 또 “독립적으로” 등의 수식구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실재(reality)와 현상(appearance)의 구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물질적 대상에 관해서 실재론의 입장은 취한다는 것은, 물질적 대상들이 N-세계의 구성 요소(element)라는 것 즉 마음에 독립해서 있는 대상(mind-independent objects)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의 대상들은 우리의 인식 작용과 상관없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세계에 존재한다는 입장을 전반적 실재론(realism in general)이라 할 수 있겠다. 여기에 대립되는 입장은 어떤 종류의 대상들(예컨대 폐가수스)은 N-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아니다. 전반적 반-실재론(anti-realism in general)은 N-세계에는 어떤 종류의 대상들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²⁰⁾ 즉 N-세계는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반적 실재론에서는 모든 대상의 실재성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 어떤 대상들은 분명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어떤 종류의 대상들은 우리의 생물학적 본성, 우리의 관심 및 가치로 인해서 생겨난다. 다만 어떤 대상들은 우리의 이런 특성들과는 상관없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면 전반적 실재론이 된다.

Dummett과 Putnam이 실재론의 문제를 다루는 맥락은 이런 것이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 설 경우에만 전반적 실재론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게 된다. Putnam(1983, 49)은

20) 이것은 N-세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과는 다르다. 경험의 근거가 되는 본체계(Noumena)의 존재 여부는 이를 배반에 빠지지 않고서는 사유할 수 없는 것이다.

실재론을 일단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실재론 : 세계는 정신—독립적인 대상들의 확정된 전체로 이루어져 있다.(the world consists of some fixed totality of mind-independent objects.)

또 Dummett은 실재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우리는 우리의 인식파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외부 대상들을 성공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
...”(1982, 104)

“확고한 구조를 지닌 객관적인 외부의 실재가 우리와는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것에 관해 말하고...”(1978, xxv).

Dummett에 있어서 이것들이 실재론에 대한 정의의 구실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에 있어서 실재론의 정의는 의미론을 통한 것이다. 여기서는 다만 이들이 실재론의 문제를 이런 맥락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들의 논의가 가진 특수성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실재론과 진리 개념 사이의 관계는 비교적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가 있다. 인식 능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은 동시에 인식 초월의 가능성을 뜻한다. 이 가능성의 실현 여부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그 자체로서 파악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대상의 존재와는 별개의 사실에 달려 있다. 실재론이 반드시 인식 초월적 진리 개념(recognition-transcendent notion of truth)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전자의 입장에서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반면 Putnam과 Dummett은 많은 경우 전자에서 후자에로 이행한다는 것은 이들이 이성적 혹은 감성적 직관을 받아들일 용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²¹⁾ 어쨌든 Putnam과 Dummett은 실재론이 어떤 종류의 진리 개념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실재론이 함축하는 진리 개념을 규정하는 방식과 과정에 있어서는 비록 차이가 있지만, 위에서 지적한 특성 즉 인식 초월성이 실재론의 한 개 구성요소라고 보는 점에 있어서는 양자가 일치한다. 이제 인식 초월적 진리개념을 “실재론적 진리 개념(realist notion of truth)”이라 부르자. 이처럼 실재론이 어떤 진리 개념을 함축한다면, 바꾸어 말해서 어떤 진리 개념이 실재론의 구성 요소를 이룬다면, 이 진리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공박은 곧 실재론 일반에 대한 논박이 된다. Dummett과 Putnam의 실재론 논박은 바로 이런 성격의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대상 영역에 관해서라도 실재론의 입장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먼저 이 논박을 물리칠 필요가 있다. 해당 대상 영역의 특수성에 입각해서 실재론을 옹호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Dummett은 종래의 여러 실재론 논쟁의 공통점을 바로 이 점—실재론이 함축하는 진리 개념의 문제점을 밝힘으로써 제기되는 전반적인 실재론 논박이 있다는 점—에서 찾는다.

21) 그 자체로서의 대상을 직접 파악하는 인식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소박한 인식론에서는 오류의 가능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Dummett은 지적한다. 한편 Putnam은 자신의 실재론이 비판이 직접적으로는 자연주의자들(naturalists)에게만 적용되고 선천적 실재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후자는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퇴조해 버린 입장이라고 말한다.

위에서 우리는 진리(truth)를 정당화됨(Justification)으로부터 극단적으로 구별하는 인식 초월적 진리 개념을 “실재론적 진리 개념”(realist notion of truth)이라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 진리 개념이 실재론의 모든 특성을 망라하고 있다거나, 혹은 실재론의 진리 개념의 내용이 이 진리 개념으로써 완전히 설명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아니다. 우선 Dummett과 Putnam 각자가 말하는 바 실재론의 진리 개념의 공통 분모가 바로 진리 개념의 이런 특성(인식 초월성)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들의 실재론 비판의 춤점도 바로 실재론이 함축하는 바 진리 개념의 인식 초월성에 모인다. 비록 Putnam의 주된 실재론 비판이 진리 대응설의 기반이 되는 지시 관계에 착안한 것이기는 하지만(Ⅲ장), IV장 2절에서 나타나는 구조 실재론의 입장이 보여 주듯 인식 초월적 진리가 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해서 실재론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Putnam에 있어서도 실재론에 대한 논박은 바로 인식 초월적 진리 개념에 대한 논박으로써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Putnam과 Dummett의 실재론 논박에 관심이 있는 우리로서는 실재론이 함축하는 진리 개념을 보다 완벽하게 정의하는 일이 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2. 실재론의 진리 개념(I) : Putnam

Putnam은 실재론을 일단 진리 대응설(correspondence theory of truth)과 동일시한다. 그런데 진리 대응설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Putnam은 덧붙일 말이 있다. 종래의 진리 대응설은 이렇게 표현된다 : 「참인 진술은 사실에 대응하는 진술이다」(True statement is a statement that corresponds to the facts). 여기서 주된 문제는 진술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사실을 지시할 수 있는 방법 및 사실들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기준이 없다는 데 있다. 그래서 진리 대응설은 공허한 것이거나 아니면 사소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한편 Tarski의 진리 정의(Tarski's definition of truth)와 더불어 새로운 각도에서 진리 대응설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진리를 설명하는 언어와 세계와의 관계는 명제와 사실의 일치가 아니라 단어와 그 대상과의 지시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나머지 부분은 Tarski식으로 정의된다(Davidson 1969 ; Field 1974, 200)²²⁾ Putnam이 말하는 진리 대응설도 일단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반면 (1) Tarski식 진리 정의가 실재론의 진리 개념 하에서만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2) 고전 논리(classical logic)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그렇다. 이 두 명제를 한 명해 보자. 직관주의 수학에서는 논리 상수의 의미가 다음과 같이 (객관적 진리 개념이 아니라) “구성적 증명 가능성”(constructive provability)의 개념을 통해 설명된다.

(a) 명제 p를 주장하는 것은 p가 증명 가능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Asserting p is asserting p is provable)

22) Tarski도 자신의 진리 정의가 진리 대응설의 정신을 살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때 근거로 제시된 것은 T—문장이다.

(b) $\neg p$ 는 p 의 증명 가능성을 주장함이 모순에 빠진다는 것을 주장한다. ($\neg p$ asserts the absurdity of p 's provability)

(c) 「 $p \cdot q$ 」는 p 가 증명 가능하고 또 q 도 증명 가능하다는 뜻이다. ($p \cdot q$ means p is provable and q is provable.)

그런데 이렇게 설명된 직관주의 상수를 써서 고전 접속사를 다음과 같이 재해석하면, 고전 명제산(classical propositional calculus)의 정리는 모두 직관주의 명제산의 정리가 된다.²³⁾ 결국 고전 논리의 법칙들은 논리 상수의 의미를 결정하지 못한다. 또 진리 개념이 실재론적인지 아니면 구성주의적인지를 결정하지 못한다; 반-실재론적 진리 개념 하에서도 고전 수학을 받아들일 수 있다.^{24) 25)}

연언 — 부정 변역	
고전 논리	직관주의 논리
$\neg p$	는 $\neg p$ 라는 뜻이다
$p \wedge q$	$p \cdot q$
$p \vee q$	$\neg(\neg p \cdot \neg q)$
$p \rightarrow q$	$\neg(\neg p \cdot \neg q)$

또 Tarski의 규약 T(ConventionT)는 아래와 같은 형식의 문장(T-문장)을 모두 진리 정의에서 연역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T) 눈이 풀 경우에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눈이 희다”는 문장은 참이다. (“Snow is white” is true iff snow is white.)

여기서 대상 언어의 의미를 직관주의적으로, 혹은 “유사 직관주의적”(quasi-intuitionistic)으로 해석한다면, 이 때 정의해 낸 것은 “실재론적 진리”가 아니라 “정당화됨”(justified)의 개념이 된다. 즉 위 명제(1)이 옳다.

Tarski의 진리 정의는 “명석성, 엄밀성 그리고 설명력이 결여된” 진리론의 영역에 엄

23) 양화 논리(quantificational logi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번역이 가능하다.

24) Putnam은 수학에서의 “구성적 증명 가능성”이라는 개념 대신에 “이론 T에서의 증명 가능성”(provability in a theory T)이란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이 결과를 논리적 법칙에서 경험적 법칙의 영역에로까지 확장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반-실재론적 진리 개념은 “어떤 이론 체계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음” 즉 “정당화됨”(justified)이 된다. Putnam은 “정당화됨”이라는 용어 대신에 “올바른 언명 가능성”(correct assertibility), “보장된 언명 가능성”(warranted assertibility), “합리적 수용 가능성”(rational acceptability) 등의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

25) P. Horwich(1982, 190)가 지적하듯이 논리적 법칙 뿐만 아니라 연역 규칙(inference rule) 또한 고전 수학의 구성 요소이다. 따라서 Putnam이 내린 결론은 부당한 것이다. 어쨌든 Putnam₂는 다른 고려 사항 때문에 고전 논리의 수정 가능성을 인정해야만 한다. 다만 이때에도 고전 논리의 법칙들만은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다.

밀성을 도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²⁶⁾ 그래서 실증주의적, 반형이상학적 분위기 하에서도 진리개념의 지위가 보장되었다. 이런 Tarski의 진리 정의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받아들여져 왔다.

1. Tarski의 진리 정의는 진리 개념의 모든 것을 해명하고 있다.
2. Tarski의 진리 정의(및 진리 개념과 진리론)은 형이상학적, 인식론적 논쟁에 대해서 중립적이다.

Putnam은 Tarski식 진리 정의가 직관주의적 진리 개념(혹은 “정당화됨”)과 실재론의 진리개념을 구별해 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주장1은 거부된다. 물론 진리 잉여설(redundancy theory of truth)에서는 전자와 후자의 구분이 사이비 구분이라는 비판을 제기할 것이다. 진리 잉여설에 관해서는 앞으로 다시 다루겠지만, 어쨌든 Putnam은 진리 잉여설과 진리 대응설 및 구성주의 진리설 사이에 논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Tarski의 진리 정의는 진리의 형식적 특성(formal property of truth)에만 의거하고 있으므로 형이상학적 논쟁에 대해서 중립적이지만, Tarski의 진리 정의가 진리 개념의 모든 것을 해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Putnam이 드러낸 두 가지 진리 개념마저 형이상학적 논쟁에 대해서 중립적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제까지 Tarski의 진리 정의나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서는 실재론의 진리 개념을 받아들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살펴 보았다. H.Field(1972)는 물리주의(physicalism)의 입장에 입각해서 의미론적 속성(semantic property)들도 물리적 속성(physical property)에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Tarski의 진리 정의는 지시 관계에 관해서 외연적 정의(extensional definition)에 머무를 뿐 참된 환원(real reduction)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Tarski식 진리 정의가 아닌 새로운 정의를 요구한다.

Putnam은 우선 이런 물리주의 지시론(physicalist theory of reference)이 실재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²⁷⁾ Tarski의 진리 정의는 실재론적 개념 체계 내에서 받아들여지는 한 예전히 대용 관계로서의 진리에 대한 정의이다. 이제 Putnam은 실재론적 개념 체계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묻는다. 그 특징은 정당성(justification)과 진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R) 가장 이상적인 이론(ideal theory)에서 정당화된 진술조차도 거짓일지 모른다.
실재론에 따르면, 우선 현재 이론에서 정당화된 진술이 거짓일지 모른다. 나아가서 방법론적으로 이상적이어서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는 이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정당화된 진술이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일관된 환각의 상태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실재론자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근본적으로 비인식적(radically non-epistemic)인 개념이다.

26) Hacking, I. : Why Does Language Matter to Philosophy (Cambridge, 1975), p. 131.

27) Field에 대한 Putnam의 적극적인 비판은 Ⅲ장 3절에서 다룬다.

념, 인식 초월적인 개념이다.

3. 실재론의 진리 개념(Ⅱ) : Dummett

Putnam과 달리 Dummett은 진리 대옹설을 비판한다. 그러나 진리 대옹설이 옳지 못하다는 것이 곧장 실재론적 진리 개념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기술하고 묘사하고 지각하기 이전의 세계”(a world undescribed, undepicted, unperceived ; Goodman 1978, 4)와 비교해서 진술의 진위를 가려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즉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직접 파악해내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진리 대옹설이 진리의 판별 기준(tests)을 제시하는 이론이 될 수는 없다. 또 진리 대옹설이 단지 진술의 진리성을 해명하는 원칙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 객관적 실재의 모습을 기술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대옹설은 사소한 것이 되어 버린다. 이런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만약 진리 대옹설이 아래 원칙 C와 동일시된다면, 혹은 원칙 C가 여러 진리 대옹설의 근거에 놓여 있는 것이라면, 이 원칙 및 그 전제로서의 실재론은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함축을 가진다. Dummett은 그것이 “양가 원리”(principle of bivalence)라고 한다.²⁸⁾

원칙 C : 참인 진술은(인식 작용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실재로 해서 참이다(A statement is true by virtue of objective constitution of reality if it is true ; cf. Dummett 1959, 14).

Dummett은 결국 실재론이란 양가 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 개념을 함축한다고 주장하는 셈인데, 양가 원리는 우리가 그 진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우리의 진술은 확고하게 진이거나 위라는 것을 함축한다. 양가 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진리 개념은 인식 초월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Putnam은 실재론의 진리 개념으로서 진리 대옹설의 진리 개념을 들고, Dummett은 진리 대옹설을 비판함으로써 출발하지만, 이들의 해명에서 우리는 공통된 요소를 추출해 내었다. 실재론의 진리 개념은 인식 - 초월적인 것이다.²⁹⁾

28) 모든 진술이 확고하게 참이거나 혹은 거짓이라는 원리(the thesis that every statement is, determinately, either true or false). 한편 Rasmussen / Ravnkilde (1982)는 원칙 C의 함축이 양가 원리가 아니라, 진리치 확정성의 원리(principle of determinacy)라고 주장한다(반-실재론은 “진리치에 관한 불가지론” agnosticism of truth-value 이 된다). Dummett (1982)은 비-양가적 확정성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객관주의 의미론”(objectivist semantics)이라 부른다. 어쨌든 이 두 입장은 실재론이 인식 초월적 진리 개념을 함축한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Dummett의 실재론 논박은 실재론을 포함한 객관주의 의미론 전체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 따라서 Dummett의 실재론 논박에 관심이 있는 우리로서는 Rasmussen / Ravnkilde 와 Dummett의 차이는 간파해도 좋겠다. Dummett과는 달리 양가 원리에 입각한 진리 개념이 아니라 인식 초월적 진리 개념을 “실재론적”인 것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입장도 이런 생각에 근거한 것이다.

29) Horwich (1982)는 실재론의 진리 개념이 비-잉여적(non-redundant), 비-인식적(non-epistemic) 등등 소극적으로 밖에 특징지워질 수 없다는 점을 들어서, 실재론의 입장에서 진리는 “기본적이고 정의할 수 없는 성격”(primitive, indefinable quality)라는 결론을 내린다.

4. 진리 잉여설과 실재론

M. Devitt(1983a, 74 ff 및 1983b, 292f) 와 Field(1982, 554f)는 위에서 해명한 실재론적 진리(realist truth)와 실재론이 서로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진리 잉여설도 실재론과 양립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진리 잉여설(redundancy theory of truth)이란 앞에서 본 바 있는 T-문장들만으로도 진리 개념이 완전히 해명된다는 이론을 말한다. Dummett(1959)는 진리 잉여설과 진리 조건적 의미 - 이론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일찍부터 지적하고 있다. T-문장에서 보듯, 대상 언어의 의미와 진리 개념 중 어느 한 쪽을 알면 나머지는 T-문장으로 설명된다. 그러므로 대상 언어를 알기 위해서 진리 조건을 알아야 한다면, 그때 진리 개념은 대상 언어의 이해를 전제로 해서 진리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T-문장 이외의 곳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점은 진리 잉여설이 틀렸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우선 진리 잉여설이 가능하려면, 대상 언어에 대해서 진리 조건적 의미 - 이론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의미는 진리 조건 아닌 “언명 가능한 조건”(assertibility condition)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언명은 언제나 “옳음”(correctness)과 그름(incorrectness)의 고려하에 수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 잉여설은 결국 발언의 옳음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별개의 해답을 전제로 한다. 특정 자연 언어에 속하는 “참”(true)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발언의 옳음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진리론의 주된 문제이고,³⁰⁾ 그래서 진리 잉여설은 잉여로서의 진리 개념(redundant notion of truth) 이외의 실질적 진리 개념(substantial notion of truth)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진리 잉여설은 잘못된 이론이다.

이 절은 실재론의 문제를 진리 개념의 차원에서 다루려는 Putnam과 Dummett의 시도에 대한 Devitt과 Field의 반론을 언급하고, 이 반론의 근거가 되는 진리 잉여설이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Putnam과 Dummett을옹호하려고 했다. 마지막으로 Putnam과 Dummett의 입장에 대해서 제기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반론을 살펴보자.

“진리” 또는 “지시 관계”는 언어와 대상의 관계에 속하는 것이다. 반면 실재론은 형이상학적인 입장이다. 그런데 언어야말로 우리가 아는 것을 표현하는 도구이므로 실재론을 진리론의 문제로서 다루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어떤 오해에 기인한 것이다. 예컨대 우리의 언어는 비실재론적, 겸증주의적 진리 개념 밖에 허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의 세계는 어떤 대상들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은 현상과 실재의 구분을 남용하고 있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한 반박을 모색하기 위해서 겸증주의와 실재론의 관계에 관한 Putnam(1978b, 113)의 언급에 주의해 보자 : 만약 겸증주의가 옳아서 우리의 언어가 현상적 진리 조건(phemenonal truth-condition)

30) Putnam(1982b, 595f 및 1983a, xiv)

즉, 겸증조건 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실재론을 주장하는 명제 또한 사실은 N—대상이 아니라 현상적 대상(phenomenal objects)에 관한 명제일 뿐이다. 그래서 실재론은 표현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거짓이 된다. 또 “실재론이 만약 참이라면 어떤 언어에서건 표현 가능해야 한다”(*Ibid*)는 전제에 입각해서 겸증주의와 실재론은 모순 관계에 서게 된다. 그런데 이 전제 자체의 근거는 무엇인가? 실재론이 비록 N-세계에 관한 이론이긴 하지만 그것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다. 우리가 지시할 수 없는 대상에 관해서는 사유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사유할 수 없는 것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그리고 언어는 사유를 표현하는 도구이다(cf. Dummett 1981, 431). 존재론적 실재론(ontological realism)과 의미론적 실재론(semantic realism)을 구분하는 입장에 대한 Putnam과 Dummett의 생각이 이런 것이라면, 또 Dummett처럼 실재론이 “의미론의 주장”(semantic thesis)이라고 생각하는 이면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라면, 실재론을 다루는 이들의 태도는 인식론 우위의 경향에 선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들의 실재론 논박 또한 이런 경향을 보여준다.

II. 의미-이론과 반실재론 : Dummett의 실재론 논박

Dummett은 우선 실재론을 고전적 형식의미론, 즉 二值 意味論(two-valued semantics)으로 특징지운다. 형식 의미론의 기능은 그것이 의미-이론의 핵심부가 되는 데 있다는 그의 주장이 첨부되면, 실재론은 곧 진리 조건적 의미-이론(truth-conditional theory of meaning)을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Dummett은 의미-이론을 언어 이해론으로 보고 있다; 의미-이론은 언어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이론이다.³¹⁾ 그런데 Putnam (1978c)의 실재론 응호가 보여 주듯 형식 의미론이 반드시 의미-이론 즉 언어 이해론(theory of understanding)에서만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재론을 일단 고전적 의미론으로 특징지우는 한편 이해론은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게 된다. 그러면 Dummett 자신의 실재론 논박은 일단 실재론이 언어 이해론에서 가지게 되는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²⁾

이치 의미론은 앞에서 언급한 양가 원리 이외에도 여러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2차 의미론의 다른 특성으로서 단어들이 직접 지시체와 관계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보편 논쟁의 쟁점은 진리의 객관성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 어휘(general terms)의 직접 지시(direct reference)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Dummett이 근래에 와서 주장하듯 양가 원리에 국한하지 않고 2차 의미론으로 실재론을 정의하는 것이 보다 만

31) Dummett에 있어서 의미-이론의 중심 개념은 “의미를 안다”(knowing of meaning)이다. “의미”란 인식적 개념(cognitive notion)이다.

32) 이해론 이외의 영역에서 고전적 의미론을 응호하려고 한 Putnam(1978b)에 대한 “Comments”(1979c)에서 Dummett 자신도 이런 관점을 택하고 있다.

족스려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편 여러 실재론 논쟁을 일반화해서 다루는 Dummett의 관점의 주된 근거는 이들 논쟁에서 어떤 구조적 유사성을 추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유사성이란 어떤 대상 영역에 관한 실재론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어떤 논증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재론이 가능하려면, 즉 최소한 어떤 종류의 대상들에 대해서는 실재론을 주장하려면, 먼저 이 반대 논증을 물리칠 필요가 있다.(Dummett 1981 b, 433) Dummett은 이 실재론 논박이 바로 실재론의 구성요소인 진리 개념, 양가 원리를 함축하는 진리 개념을 공격의 축으로 삼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Dummett의 실재론 논박에 주목하는 한 실재론이 무엇인가에 관한 Dummett의 입장의 변동 또한 이차적인 관심사가 된다. 이제 실재론이 함축하는 양가 원리를 중심으로 Dummett의 실재론 논박을 살펴보기로 한다.

Dummett은 의미 - 이론의 과제가 언어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해명하는 것이라고 한다. 언어를 아는 것, 말의 뜻을 아는 것은 무엇을 할 줄 아는 것, 즉 어떤 실행 능력(practical ability)을 가지는 것이다. 이 능력의 적어도 일부는 비명제적 지식(non-propositional knowledge)에 속한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 줄 아는 것, 어떤 추리를 수행할 줄 아는 것, 또 어떤 말을 들으면 어떻게 행동할 줄 아는 것 등이 바로 언어를 암으로 써 가지게 되는 실행 능력이다. 반면 의미 - 이론은 그야말로 이론(theory)이고, 이론은 명제로 표현된다. 그래서 의미 - 이론의 과제는 곧 “실행 능력을 이론적으로 표현”(theoretical representation of practical ability) 하는 것이다. 의미 - 이론은 언어 이해의 능력을 어떤 명제적 지식(propositional knowledge)에 상당하는 것으로 제시한다는 말이다. 의미 - 이론의 성격을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의미 - 이론에 있어서 개개의 명제들에 대한 파악을 언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실천 능력으로서 설명³³⁾하지 못하면, 그 의미 - 이론은 설명력이 결여된 이론”(1975, 121)이라는 Dummett의 요구가 설득력 있는 것으로 된다. Dummett은 체계적 의미 - 이론이 가능하려면 어쨌든 이런 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렇지 못한 이론을 거부함을 “방법론적 원칙”(methodological principle; *Ibid*)으로 삼는다. 실재론적, 진리 조건적 의미 - 이론에 대한 그의 비판도 바로 이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그 여러 단계를 검토해 보자.

우리의 언어가 “효과적 결정이 가능한 문장”(effectively decidable sentences : 이하 ED - 문장으로 약칭)들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양가 원리는 받아들이더라도 실재론적 진리 개념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ED - 문장의 경우에는 정의상 그 진리 조건이 만족되었는

33) 이런 설명을 수행하는 분야가 “뜻 이론”(theory of sense)이다. 뜻 이론은 의미 - 이론의 핵심부인 형식 의미론을 보좌하는 분야다. 의미 - 이론은 이 두 분야와 외곽 이론인 “force - 이론”(theory of force)의 세 분야로 이루어진다. 뜻 이론에서는 “진리 조건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in what our knowledge of truth-conditions consists), 다시 말해서 진리 조건의 이해가 어떻게 발현되고(manifested) 있는지를 다룬는데, Dummett이 실재론의 의미 - 이론인 진리 조건적 의미 - 이론에 대해서 제기하는 비판은 이것 이 뜻 이론의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도(effective method)가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참”이라는 반—실재론적 진리 개념을 받아들이더라도 ED—문장은 양가 원리를 만족한다. 그러나 “효과적 결정이 불가능한 문장”³⁴⁾(effectively undecidable sentences : 이하 “non-ED 문장”이라 약칭)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왜냐하면 non-ED 문장에 대해서 양가 원리를 받아들이면, 가정상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진리 조건은 만족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non-ED 문장에까지 2차 의미론(혹은 보다 폭넓은 개념을 쓰자면, 확정성)을 주장하게 되면, 결국 인지 초월적 진리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이제 실재론적 진리 개념이 실재론의 필요 조건이라면, 바꾸어 말해서 실재론이 다른 입장과 어떤 실질적 차이를 가지려면, 실재론이 주장되는 부류의 문장 중에 non-ED 문장이 있어야 한다. Dummett이 non-ED 문장을 생성하는 자연언어의 “문장 형성 장치”(sentence-forming operators)들을 열거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있는 것이다. 이 장치로서 Dummett은 다음 세 가지를 든다 :

- (1) 가정법 조건문(subjunctive conditionals)
- (2) 과거 시제 : 일반적으로 말해서, 도달 불가능한 시—공 영역에 대한 지시
- (3) 무한하거나 혹은 개관이 불가능한 전체에 대한 양화

(quantification over unsurveyable or infinite totalities)

non-ED 문장을 생성하는 요소가 특정 대상을 지시하는 표현—예컨대 단청 어휘(singular terms)—이 아니라, 어떤 문장(formulae)에도 부가될 수 있는 문장 형성 장치라는 점은 앞으로의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에서 언어에 non-ED 문장들이 있다는 어찌면 우연적인 사실+실재론(2차 의미론)이 실재론적 진리 개념을 합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제 Dummett의 실재론 논박은 바로 이 진리 개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임을 밝힐 것이다. 그런데 만약 non-ED 문장을 생성하는 부분이 예컨대 특정 단청 어휘(singular terms)들이라면, 해당 대상 영역에 대해서만 실재론을 포기하면 된다. 그러나 그 원인이 문장 형성 장치들에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예컨대 어떤 대상이건 그 과거 상태가 거론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Dummett의 논박이 주효하게 된다. Dummett의 논증은 실재론 일반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되는 것이다.

Dummett이 제기하는 바 실재론의 문제점은, 언어 이해가 실재론에서처럼 문장의 진리 조건을 아는 것(knowing of truth-conditions)으로 설명되고 또 이 진리 개념이 인지—초월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진리 조건을 안다는 것이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in

34) Rasmussen/Ravnkilde (1982, 390f) 가 지적하듯 구성주의적 진리 개념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non-ED 문장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실재론과 반—실재론의 논쟁에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중립적인 용어는 “효과적 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문장”이 된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앞으로의 논의의 기본 구조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what our knowledge of truth-conditions consists)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을 좀 더 부연해 보자.

어떤 표현의 의미를 아는 것은 어떤 경우 그에 대등한 다른 표현으로 대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그 지식은 술어적 지식(verbalizable knowledge)이고 명시적(explicit)이다. 또 어떤 명제(예컨대 “총각은 결혼 안 한 남자”라는 명제)가 참임을 아는 것 즉 명제적 지식(propositional knowledge)이다. 그런데 언어 이해의 능력이 이런 종류의 지식만으로 완전히 설명될 수 없음을 분명하다. 다른 경우에는 “진리 조건을 知”이란 어떤 능력으로 표현되는가? 이 때에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어떤 “실행 능력”(practical ability)으로 표현된다. 이 경우 진리조건을 아는 것은 명제적 지식으로 표현될 수 없는, 비술어적 지식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묵시적 지식(implicit knowledge)일 수 밖에 없다. 결국 실재론 즉 진리 조건적 의미—이론은 언어 사용자가 갖고 있는 지식의 적어도 일부는 묵시적 지식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이런 지식을 구성하는, 바꾸어 말하자면 이런 지식이 발현되는 바의 실행 능력은 기본적으로 : 진리 조건이 만족되고 또 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문장이 참임을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설명된다. 여기서 인지 즉 관찰(observation)에 관해 어떤 형 이상학적 제한을 가할 필요는 없다. 관찰 가능한 범위는 가능한 한 넓게 잡아도 좋다. 그러나 관찰로서 진리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는 원칙상 한계가 있다. non-ED 문장이 바로 그런 경우다.

non-ED 문장의 경우, 말하자면 우리의 관찰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 진위를 판별할 수 없는 상황이 있게 마련인데, 실재론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도 이 문장은 확고하게 진이거나 위이다. 이런 경우 그 진리 조건에 대한 지식은 결코 발현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런 문장들의 진리 조건을 아는 것은 완전 발현(fully manifested)이 불가능한 묵시적 지식이다. 2차 의미론을 기반으로 삼는 언어 이해론은 인지 초월적 진리 조건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주장을 험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언어의 어떤 용법(use)으로 발현되는지를 설명할 길이 없다. 바꾸어 말해서 진리 조건적 의미—이론에서는 언어의 용도에서 발현되는 것 이상의 언어 능력을 언어 사용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셈이다.

앞에서 진리 조건에 대한 지식이 어떤 실천 능력으로서 완전히 발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의미—이론의 설명 목표에 관한 Dummett의 견해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원칙을 “완전 발현의 원칙”(principle of full manifestation : 이하 PFM이라 약칭)이라고 부르자. 위에서 진리 조건적 의미—이론(및 그것이 응호하고 있는 실재론)이 이 원칙에 위배됨을 보았다. 우리는 그 원인이 결국 실재론적 진리 개념을 받아들인 데에 있다고 주장한 셈이다. Dummett은 자신의 PFM이 “의미는 용도”(meaning is use)라고 말하는 Wittgenstein의 정신을 이어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앞에서 PFM을 받아들이는 근저에는 의미—이론의 설명력(explanatory power)의 문제가 있음을 보았다. PFM의 또 한 가지 근거로서 의미의 전달 가능성(communicability of sense)의 문제가 있다. Frege는

뜻(sense)이 객관적임을 강조한다. 이는 여러 언어 사용자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우리는 언어 습관(linguistic practise)을 익힘으로써 언어를 배운다. 그런데 언어의 의미가 어떤 언어 습관으로서도 완전히 발현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렇게 해서 언어를 배운 여러 사람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제 “뜻이 객관적이라는 Frege의 주장은 의미가 용도라는 Wittgenstein의 원리를 예감하고 있는 것”(Dummett 1976, 135)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실재론적 진리 개념에 대한 이런 비판³⁵⁾은 실재론의 대안으로 추구되는 어떤 반-실재론이 그럴듯함(tenable)을 보여 주기 전에는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진리 조건적 의미—이론의 대안으로서 추구되는 검증주의 또는 반증주의 의미—이론(verificationist theory of meaning or falsificationist theory of meaning)과 그것이 함축하는 바 반-실재론적 진리 개념에 대한 설명은 V장으로 미루자. 문장의 의미가 여기서는 진리 조건이 아니라 문장이 검증(반증)되어질 조건을 아는 것으로서 설명되고, 진리 개념은 검증 또는 반증의 개념을 통해서 2차적으로 정의된다는 점만을 여기서 지적해 두자.

III. 지시론과 반-실재론 : Putnam의 실재론 논박

1. Putnam : 실재론자로서 또 반-실재론자로서

위에서 Dummett의 실재론 논박이

(1) 실재론을 2차 의미론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고,

(1') 여기서 실재론적 진리 개념을 끌어낸 다음

(2) 이것이 의미—이론, 즉 언어 이해론에서 가지는 문제를 제기하는 단계로 나누어져 있음을 보았다. 실재론에 대한 비판이 의미—이론에서 이루어진 것은 형식 의미론(semantics)의 유일한 기능은 의미—이론의 기반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는 Dummett의 견해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다.³⁶⁾ 또 이 견해는 「의미=진리 조건(을 결정하는 것)=언어를 이해함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라는 전통적 견해의 표출이다. Dummett의 입장은 일단 이렇게 놓고 보면, 의미—이론에서는 실재론적 진리 개념을 옹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재론적 진리 개념의 근거가 다른 곳에서 마련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떠오른다. 이런 생각은 의미론 및 의미라는 개념

35) Dummett의 실재론 논박은 주로 “발현 논증”(manifestation argument)과 “습득 논증”(acquisition argument)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전자를 주된 것으로 보고, 후자는 전자에 의거해서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다. Dummett의 논박을 이렇게 보면, Dummett이 “안락 의자 학습 이론”(armchair learning theory)에 입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부당함을 알 수 있다. 세련된 학습 이론에 의거함으로써 Dummett을 몰리치려는 노력은 Dummett의 보다 중요한 논박을 검토하지 않는 한 공허한 것이다.

36) Dummett의 비판이 그 이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Putnam의 접근 방식을 다루면서 언급하겠다.

이 독립된 여러 개의 분파로 나누어지고 있는 추세와도 부합한다. Putnam(1975c)에서는 위 등식의 세 항이 각기 독립적인 것이고, 서로 다른 분야에서 기능을 한다. Putnam의 언어 이론에서 :

(a) (좁은 의미에서의) “의미”는 상호 의사 소통(communication)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b) 언어의 이해(language understanding)는 일종의 용도 이론(use theory)으로 설명되며;

(c) 지시 또는 진리의 문제는 이 양자와 무관한 것이다.

이제 (c) 분야의 정당성이 어떻게 보증되어야 하는지가 과제로 남게 된다. Putnam₁은 이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근거를 경험적 사실들에서 찾는다. 정신 독립적 대상과의 지시 관계를 기반으로 진리 개념을 설명하는 진리 대용설을 받아들이는 실재론이 경험적 가설(empirical hypothesis)이라는 입장이 바로 그것이다.

[실재론의] 전략은 … 언어 사용자가 자기의 환경에 대해서 기호화된 표상 체계(symbolic representations)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언어 사용자가 자기의 환경과 인과적 상호 작용을 가질 때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 표상 체계가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환경에 대처하는 그의 노력이 성공할 것인지 또 타당한 것인지를 결정된다. 그래서 언어 사용자와 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인간들의 행동에 관한 인과적 모형의 일부가 된다(Putnam 1983a, 4 ; 저자 강조).

실재론 즉(Putnam의 입장에 따른다면) 진리 대용설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을 설명하는 이론의 일부가 된다. 여기서 설명되는 사실 즉 실재론의 논거로서 Putnam₁은 과학의 수렴(convergence of science), 언어 행위의 성공(success of linguistic behavior) 및 (이것의 일부라 생각되는) 과학의 성공(success of science)을 든다.³⁷⁾

언어 이해는 (비실재론적이어서 Dummett에게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용도 이론으로 설명된다. 용도를 익힘으로써 언어를 이해한 이상(meta 언어까지 이해한 이상), 대상 언어의 각 표현들이 무엇을 지시하는지도 자유로이 말할 수 있다.—예컨대 “고양이”는 고양이를 지시한다”고. 그리고 대용 관계에 관한 진술들이 어떤 사실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의 일부라면, 진리 대용설 즉 실재론이 경험 과학 이론들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옹호되는 셈이다.

이제 Dummett의 논증의 강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실재론적 진리 개념으로써 어떤 경험적 사실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 설명이 이루어지는 meta-언어에서는 이미 대상 언어에 대한 실재론적 진리 개념이 습득(acquire)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Dum-

37) 이것은 실재론에 관한 경험적 접근 방식이라고 할 만하다. 어쨌든 Putnam₁은 이 접근 방식으로 형이상학적 논쟁조차 매듭지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mett의 논증은 단순히 언어 이해가 사실상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가능한 언어 이해의 한계를 논하고 있는 것이다. Dummett의 논증이 옳다면, 이것은 이미 Putnam₁이 가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Putnam₁이 가졌던 전제와 Putnam이 실재론을 포기하게 되는 분기점이 드러난다. Putnam의 입장은 “언어와 그 사용자의 환경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론 [지시 인파선?] 을 포함한 우리의 이론 전체가 우리의 진리 개념을 결정한다”(1979 a, 228) 는 것이다. Putnam에 있어서 실재론의 진리 개념은 정신 독립적 대상(mind-independent objects)에 대한 지시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되는 진리 개념이다.³⁸⁾ 그래서 Putnam₁의 입장은 “우리의 이론 전체가 지시 관계를 결정한다”³⁹⁾ (our entire theory determines reference) 는 것이다. 이 전제가 옳다면 이론이 경험의 지지를 받게 되는 조건(일종의 용도)을 암으로써 언어가 이해되며, 이렇게 해서 이해된 언어(혹은 언어 이해 + 경험적 상황의 결과로 선택된 이론)는 사실상 정신 독립적 대상과 어떤 단일한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정의되는 진리 개념은 인식 초월적인 것이다.

지시체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경험적 법칙들의 객관성을 부정하는 협약주의자(예컨대 Grünbaum)들을 논박(Putnam 1975b) 할 경우에는 이 전제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상이한 지시체의 할당이 반드시 경험적 법칙들의 수정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지적되고, 이 전제가 협약주의의 논박이라는 맥락을 떠나서 실재론의 지지 근거로서 명시되었을 때는 그 부당성이 드러날 수 밖에 없다.

문장 단위에서의 진리치 할당이 단어들의 외연을 결정하기에 불충분(지시 관계의 미확정성, underdetermination of reference) 하고, 나아가서 지시 관계는 불확정적이라는 것(지시 관계의 불가투시성, inscrutability of reference)은 이미 Quine이 논하고 있다. Putnam₁(1975b)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도 그 여파를 의식하지 못했던 것은 우선 그 글이 협약주의 논박을 주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고, 둘째로 지시 관계의 불가투시성을 문장 번역 불확정성의 일부로서 다루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보듯이 전자를 주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후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자는 후자보다 더 문제성이 없는 주장이다.⁴⁰⁾ 그리고 불가투시성 원리의 바탕에는 Skolem-Löwenheim 정리가 있다. 이제 Putnam₁의 문제는, 이론의 진리성을 보장해 주는 어떤 해석 체계(표준적 해석, standard interpretation)가 있

38) 인식 초월성(recognition transcendence)은 이런 진리 개념의 징표로 생각하고 있다.

39) 이론은 법칙들의 총체다. 그러므로 이것은 “법칙이 지시체를 결정한다”(Putnam 1983 d, 71)는 것과 같은 입장이다. 또 이론은 실험 조건(operational constraints)과 이론 조건(theoretical constraints)로 결정되므로, “정합 관계가 지시체를 결정할 수 있다”(Putnam 1975b 164f)는 것도 같은 주장이다(Putnam (1975 b)가 외부 정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 조건에 내부 정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 조건에 각각 해당함에 주목할 것). 또 이론 언어에서 언어의 이해는 주로 주어진 상황에서 옳은 이론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use determines reference” 또한 같은 입장임을 알 수 있다.

40) Quine (1970, 182), Lewis (1974, 342f) 가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면 이것과 상충하면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의 진리성을 보장해 주는 다른 해석 체계 (비표준적 해석, non-standard interpretations) 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위 전제는 포기해야 한다. 또 그 전제가 Putnam₁ 의 실재론 옹호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상기한다면, Putnam₁ 의 시도가 실패함을 알 수 있다. Putnam₂은 실재론이 포기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하는 Putnam 의 논증들을 분석하는 것이 이장의 과제다.

2. 비표준적 해석과 지시 관계의 미확정성

앞에서 Putnam₁ 의 실재론 옹호가 어떻게 지시론의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앞으로는 Putnam₂ 의 실재론 논박에서 이 문제가 중추적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좀 다른 맥락도 언급하게 될 것이다(아래 Ⅲ장 3절) 이런 점들을 잠시 덮어 두고 지시론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좀더 천착해 보기로 하자.

여기서 지시론의 문제라고 부르는 것은 “문장 단위에 대한 진리치의 할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지시체를 할당하는 해석 체계들이 있다”는 주장을 말한다. 이것을 “지시 관계 미확정성의 원리”(thesis of under-determination of reference : 이하 TUR로 약칭)라고 부른다. TUR이 옳다면, 앞에서 언급한 Putnam₁ 의 전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분명하다. 실험 조건(operational constraints)과 이론 조건(theoretical constraints)은 기껏해야 참인 문장들을 결정할 수 있을 뿐, 단어의 지시체들을 직접 결정할 수는 없다.⁴¹⁾ 그래서 이론 결정력에 관한 이 두 조건의 영향력을 어떻게 평가하건, 언어의 용도가 단어의 지시체를 결정할 수는 없게 된다.

Quine은 일단 가상의 예를 들으로써 TUR을 제시한다. 토끼가 나타나 있는 때에 달했을 경우에만 참인 관찰 문장으로서의 “Gavagai”的 진리 조건이 이를 구성하는 단어 “gavagai”的 지시체를 결정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컨대 “Gavagai”에 대한 번역으로 제시되는 아래 세 문장의 진리조건은 동일하지만, 그 각각의 경우 “gavagai”的 지시체는 서로 다른 것(토끼 ; 토끼—단면;⁴²⁾ rabbit-slice ; 토끼임, rabbithood)이 되기 때문이다.

- (1) 저기 토끼가 있다(There is a rabbit over there).
- (2) 저기 토끼—단면이 있다(There is a rabbit-slice over there).
- (3) 저기 토끼임이 예화되어 있다(There is a rabbithood being exemplified over there).

41) 게다가 이 두 가지 조건이 옳은 이론을 하나로 (uniquely) 결정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그렇지 못하다는 주장이 바로 “경험적 증거에 대한 이론 미확정의 원리”(thesis of under-determination of theory from evidence)이다. 이 원리는 Quine의 문장 번역 불확정의 원리 (thesis of indeterminacy of translation)의 근거가 된다.

42) 차원을 가진 대상인 토끼를 시간축을 따라 자른 것을 한 개의 대상으로 된 것.

이것은 단지 가상의 예에 불과하다. 우리의 언어가 실제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예로서 Quine 은 다음 두 가지를 든다.

(a) 예컨대 표현(expressions) 과 그 Gödel 수(Gödel number) 사이의 관계 : 우리는 “1”이라는 숫자(numeral) 가 추상적 대상으로서의 수(number) 를 지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것이 대표하는 어떤 표현(예컨대 “a”) 을 지시하는지를 알 도리가 없다. (후자와 같은 경우를 우회적 지시 deferred ostension 이라 부른다.) 문제는 어떤 단어가 직접 지시 관계를 갖는지 아니면 우회 지시 관계를 갖는지가 문장의 진리 조건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는 데 있다.

(b) “두 마리의 소”와 같은 경우 :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two oxen” 또는 “two heads of cattle” 이 된다. 그런데 전자에서는 “소”가 구체적 일반 명사(concrete general term)인 반면 후자에서는 물질명사(mass term)로 된다——즉 서로 다른 것을 지시한다.

그러나 이런 단편적인 예들, 몇 개 문장의 진리치를 보존하는 상이한 해석의 예들만으로서는 모든 문장의 진리치에 손상이 없다는 보다 큰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이런 예들을 미확정성의 사례로 제시하는 근거를 Quine 은 Löwenheim-Skolem 정리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다.

양화 체계의 변수들이 어떤 확정적인 변역을 가지고 있고 해석된 술어들의 사전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의 정비된 표준 기호 체계를 생각해 보자. 술어들에 대한 무수한 재해석 및 변수들의 변역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의 참인 문장들은 여전히 참이다. 사실 술어들을 적절하게 재해석하기만 하면, 동일한 크기의 어떤 변역이라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참인 문장들을 참으로 해석되도록 할 수가 있다). 만약 주어진 변역이 무한 변역이라면, 무한 변역이기만 하면 된다 : 이것이 Skolem-Löwenheim 정리다. 이런 모든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참인 문장들은 여전히 참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아마 단어들의 지시체라기 보다는 문장들의 진리치 및 진리 조건일 것이다 (Putnam 1981b, 41에서 재인용).

“gavagai”의 예나 우회적 지시(deferred ostension)의 예들은 위 글 전반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예들은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Putnam (1981b) 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이 예들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예를 지시한다.

첫째, 서로 다른 해석에서의 지시체들이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대상들이다.

둘째, 현실 세계에서의 진리치 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 세계(possible worlds)에서의 진리치마저 변경시키지 않는다.

이 예를 둘으로써 Putnam 은 Quine 의 예들이 가진 한계가 TUR 자체가 가진 한계가 아

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제 이 예를 가지고 TUR을 좀더 설명하도록 하자.

(1) 고양이가 매트 위에 있다(A cat is on a mat).

문장 (1)에 대한 표준적 해석에 따르면, “고양이”는 고양이를 “매트”는 매트를 지시한다. 이 문장은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느 때건 적어도 한 마리의 고양이가 적어도 한 개의 매트 위에 있는 가능 세계에서 참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현실 세계에서 참이다. 이제 같은 진리 조건을 가지면서도 “고양이”가 벼찌를, “매트”가 나무를 지시하게 되는 비표준적 해석을 제시해 보자. 우선 아래 문장 (2)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해석을 살펴 보자.

(2) 고양이 * 가 매트 * 위에 있다 (A cat * is on a mat *).

이 해석은 아래와 같이 (a),(b), (c) 세 경우를 구별한 것을 기초로 “고양이 * ”와 “매트 * ”를 정의함으로써 제시된다.

(a) 어떤 고양이가 어떤 매트 위에 있다. 또 어떤 벼찌가 어떤 나무 위에 있다.

(b) 어떤 고양이가 어떤 매트 위에 있다. 그러나 어떤 나무 위에도 벼찌는 없다.

(c) (a),(b) 어느 경우도 아니다.

“고양이 * ”의 정의

경우 (a)가 옳고 x 가 벼찌이거나 ;

경우 (b)가 옳고 x 가 고양이거나 ;

경우 (c)가 옳고 x 가 벼찌일 경우에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x 는 고양이 * 다.

“매트 * ”의 정의

경우 (a)가 옳고 x 가 나무이거나 ;

경우 (b)가 옳고 x 가 매트이거나 ;

경우 (c)가 옳고 x 가 쿼크(quark)일 경우에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x 는 매트 * 이다.

고양이 * 와 매트 * 를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문장(1)과 (2)는 진리조건이 같다. 고양이 * 가 매트 * 위에 있을 경우에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고양이는 매트 위에 있게 된다(A cat is on a mat iff a cat * is on a mat *). 이제 “고양이”와 “매트”를 재해석해서 원래 해석(표준적 해석)에서 “고양이 * ”와 “매트 * ”가 가졌던 Carnap적 내포(Carnapian intension)⁴³⁾를 “고양이”와 “매트”가 각각 가지도록 한다면, 문장 (1)의 진리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 현실 세계는 경우 (a)에 속하므로, 이런 비표준적 해석에서 현실 세계에서 “고양이”的 외연은 벼찌들의 집합이다. 모든 가능 세계에서 문장 (1)의 진리치는 보존되면서도 “고양이”는 벼찌를 지시하게 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가능 세계에서 모든 문장의 진리치를 보존하면서도, 단어들이 표준적 해석에서와는 다른 Carnap적 내포 및 지시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Putnam (1982 b, appendix)은 보여 준다.⁴⁴⁾

43) 가능 세계에서 외연에로의 합수.

이제 이상과 같은 Putnam의 TUR옹호를 좀 더 해명하는 몇 가지 주석을 첨가해 보자. 이 주석은 고양이와 고양이*를 구별할 수 있는 방도를 찾음으로써 TUR을 논박하려는 시도에 대한 Putnam의 반론을 살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I) 위에서 예로 든 고양이*임(*being a cat**)과 매트*임(*being a mat**)은 일견 비직관적이고 기괴한 속성이다. 그래서 고양이를 보고, 검사해서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기계는 만들 수 있지만, 고양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반론이 예상된다. 그런데 이런 반론은 (3) 문장과 동일한 진리 조건을 가지고록 (4) 문장을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다. 이제 다시 쟁점은 전과 같은 것, 즉 (3) 내지 (4)의 진리 조건에서 그 단어의 지시체가 결정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로 되돌아 가게 된다.

(3) X는 고양이를 본다. (검사한다. 고양이라고 말한다.)

(4) X는 고양이*를 본다.* (검사한다.* 고양이*라고 말한다.*)

(II) 우리의 단어가 지시할 수 있는 것은 내적 속성(*intrinsic property*) 만으로 구별될 수 있는 대상들인데, 고양이*는 외적 속성(*extrinsic property*)를 끌어들여야만 가려낼 수 있는 대상이라는 반론이 예상된다. 이런 반론이 가진 문제는, 만약 “고양이*” 등을 기본 어휘로 삼고 있는 언어 L*가 있다면 “고양이”가 오히려 고양이* 및 벼찌*의 외적 속성의 도움을 받아서 정의된다는 데 있다. 내적 속성과 외적 속성의 구별 자체가 어떤 것을 기본 어휘로 삼느냐에 대해서 상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TUR은 이 구별이 문장들의 진리 조건만으로서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III) 세 번째 반박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다: 우리는 언어로 표현되는 신념을 토대로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따라 행동한다. 행동이 예측된 결과를 가져옴으로써만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진화 및 생존 과정은 단어와 대상 간의 여러 가능한 대응관계 중에서 한 개를 지시관계로 결정하는 제약 조건이 된다.⁴⁵⁾

여기에 대한 응수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행동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념들(그 중 행동 지시 신념들, *directive beliefs*)이 참이라는 것으로 충분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비표준적 해석에서의 진리 또한 표준적 해석에서의 진리와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한 충분조건이다. 사실 비표준적 해석에서의 진리는 표준적 해석에서의 진리와 같은 것이다.

(IV) Putnam은 표준적 해석 이외에 비표준적 해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TUR을 옹호한다. 이것은 결국 표준적인 것과 비표준적인 것이 구별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

44) 여기서 이 증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 증명은 문장의 진리치가 그 술어들이 무엇을 지시하는가가 아니라 술어들의 포함 관계가 어떤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술어들이 지시하는 대상을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바꾸게 되면, 술어들의 포함 관계 및 문장의 진리치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증명 또한 모형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서 Löwenheim-Skolem 정리와 더불어 TUR의 주된 근거가 된다.

45) 이것이 바로 언어 행위의 성공을 토대로 실재론을 옹호하는 Putnam(1978c)의 근거라는 점에 주목할 것. 이에 대한 Putnam(1981b, 38ff)의 반박은 전자의 논증이 실재론 옹호의 근거로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Putnam 스스로 보여 주고 있다.

이다. 그런데 표준적 해석 하에서의 모형인 “뜻한 바의” 모형(“intended” model)은 언어 사용자의 의도에 있어서 그렇지 않는 모형(unintended model)과 구별되고 있지 않는가?

여기서 말하는 의도(intention)는 단어 *a*로써 대상 *b*를 지시하려는 생각(thought)이다. 이런 의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미 대상 *b*를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고양이”와 고양이가 가지는 대응 관계 R_1 과 “고양이”와 고양이*가 가지는 대응 관계 R_2 가 있을 때, “고양이*”로써 고양이를 지시하려는 생각(intention)을 가진다는 것은 R_2 아닌 R_1 이 지시 관계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R_1 과 R_2 를 구별해서 둘 중에서 R_1 을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바로 이런 능력이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실재론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대상을 지시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TUR은 대상 지시 능력이 이론들의 진리조건을 아는 것으로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다시금 TUR을 논박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래 문제인 지시 능력을 끌어들이는 것은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petitio principii)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듯이 의도란 지시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시 능력으로써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결론은 지시 관계가 미확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Putnam은 유력한 지시체 결정 이론을 모두 논박한 셈이다.

그 첫째는 앞에서 언급한 Putnam₁이 가졌던 이론, 즉 실험 조건과 이론 조건이 지시체를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둘째는 언어 사용자들의 심리 상태 또는 우리가 단어에 부여하는 (내포라는 뜻에서의) “의미”가 지시체를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Putnam(1975c)는 자신과 Kripke의 의미론을 이런 견해에 대한 논박으로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동일한 심리적 상태하에서 같은 필요 충분 조건을 염두에 두고서 사용하는 단어들의 경우에도 언어 사용자와 상호 작용하고 있는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한 상론은 생략하기로 하자.

Putnam은 지시 관계가 미확정적이라는 것이 후천적 실재론(a posteriori realism)⁴⁶⁾이 갖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후천적 실재론에서는 “‘고양이’가 고양이를 지시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지시 관계의 수수께끼가 제기된 배경에는 후천적 실재론이 전제되고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우선 후천적 실재론의 한 형태인 물리주의의 입장에 대해서 TUR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살펴 보자.

3. 물리주의와 지시 인파설 : 그 비판

46) D. M. Armstrong: *Universals and Scientific Realism* (Cambridge U.P., 1978)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임.

지시체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Quine-Putnam에 따른다면 지시관계는 미확정적이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미확정적이란 말인가 (*underdetermined by what*)? 세계에 관한 우리의 이론 전체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미확정적이다. 여기서 이론이란 경험적 이론을 말한다. 반면에 대상을 있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초험적 인식 능력인 예지적 직관(*intellektuelle Anschabung*)이 있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지시 관계의 후보로 등장하는 여러 대응 관계 중 어느 것이 진짜 지시 관계인지는 이 인식 능력이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개별적 대상의 “본질”(Form)이 파악되고, 개별적 대상들 자체가 어떤 류(kind)에 속하는지가 결정된다. 이제 내적 속성(*intrinsic property*)과 외적 속성(*extrinsic property*)의 구분의 상대성이 해소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들은 내적 속성들만으로 가려낼 수 있는 대상들을 지시한다는 대답이 가능하게 된다.

거꾸로 말해서 진리 대응설(및 그 구성 요소인 지시 관계)이 문제성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은 명제를 대상 자체와 직접 비교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이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어쩌면 문화적 조류를 거슬러서 중세나 고대로 돌아감, 즉 Gödel(및 어쩌면 Kripke)과 더불어 예지적 직관의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서 본질주의 철학을 수용함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입장을 해결책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도 비교적 분명하다: 우리는 중세인이 아니다. Kant가 단지 가언법으로만 “만약 우리에게 신과 같은 예지적 직관의 능력이 있다면, …”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지적이 비록 선천적 인식 능력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한 가지 배경을 드러내 준다.

Quine의 의미론 및 전반적 철학의 중핵이 자연주의(naturalism)임은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여기에 입각해서 Quine은 지시 관계가 미확정이라는 전제에서 불확정(indeterminacy)이라는 결론을 끌어낸다. 물리주의자⁴⁷⁾들은 물리학이 우리가 가진 최상의 이론이라고 주장하는 점에서는 Quine과 일치하지만, 물리학이 그 자체로서의 세계의 구조를 드러낸다고 보는 점에서는 Quine과 대립된다. 이런 관점에 입각해서 물리주의자들은 지시론의 문제에 대해 Quine과 반대되는 결론을 끌어낸다. 물리주의자 Field는 지시 관계에 대해서도 물리주의적 환원이 수행되어야만 의미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시 관계는 단어와 대상 사이의 인과적 상호 작용으로 설명되어야 하며, 이것에 관한 탐구는 경험적으로—즉 그 상호 작용이 준하고 있는 경험적 법칙들을 밝힘으로써—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시 관계에 관한 Putnam의 고찰은 한편으로는 Field의 이런 입장에 대한 검토에서 비롯한다. 지시론에서 Putnam의 결론은 Field를 다음과 같이 논박하는 데 이른다:

47) “화학적 사실, 생물학적 사실, 심리학적 사실 및 의미론적 사실이 모두 (원칙상) 물리학적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는 주장,” Field (1972, 91); “기계론(mechanism)의 계승자,” *Ibid.*, p. 92.

Field가 요구하는 물리주의적 환원이 수행되어서 지시 관계가 R이라는 물리학적 관계임이 밝혀졌다고 하자. 문제는 어떻게 이 관계 R 자체를 지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자연 과학적 탐구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Field가 명시하듯 그 관계가 준하고 있는 법칙들 밖에 없다. 즉 아래 문장 (1)이 참임을 밝힐 수 있을 뿐이라는 말이다.

(1) 단어 x 가 대상 y 에 대해서 R의 관계를 가진 경우에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x 는 y 를 지시한다 (x refers to y iff x bears R to y).

그런데 “ x 가 y 에 대해서 R의 관계를 가진다.” (또는 “ y 가 x 에 대해서 적절한 종류의 원인이 된다”)는 문장의 진리치는 이를 구성하는 단어들(여기서는 “ y ”와 “R”; “ y ”와 “원인”)에 대한 비표준적 해석을 배제할 수 없다. “원인”에 대해서도 “원인*”의 Carnap적 내포를 갖게 하는 비표준적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물리주의자들은 지시 관계의 후보로 나타나는 여러 경험적 관계($R, R', R'' \dots$) 들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 지시 관계인지 결정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단어 “원인”은 비록 상이한 해석들을 허용하지만 그 중 한 가지만이 원인이고, 지시 관계도 이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물리주의의 입장이라면, 지시 관계는 결코 해명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형이상학적” 사실이 된다.⁴⁸⁾ 이것은 “해결책이 없는 문제” (I know not how)를 “설명할 수 없는 사실” (I know not what) 을 들어 해결하는 것이다.

Putnam의 물리주의 비판에 대한 Field의 응수는 당연히 TUR을 논박하는 데 있어야 한다. Field(1972 및 1974)는 “부분적 지시 관계”(partial reference)란 개념을 도입한다. 부분적으로는 어떤 집합을 외연으로 가지면서, 부분적으로는 다른 집합을 외연으로 가지는 단어들이 있다. 이들은 동시에 양자를 다 지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해석 체계 하에서는 전자를 그리고 다른 해석 체계 하에서는 후자를 지시한다. 그래서 지시 관계의 이런 상대성에도 불구하고, 부분적 지시 관계 자체는 정신 독립적 대상과의 확고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다.⁴⁹⁾

이 입장은 대상 언어의 부분 지시 관계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meta-언어(Field 1972 에서는 최선의 과학 이론) 자체에 대해서도 비표준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다. Field가 든 예를 사용하자면, “‘(Newton 역학에서의) 질량’이 (Einstein 역학에서의) 정지질량_E을 부분적으로 지시한다”는 문장이 “질량”과 어떤 외부 대상(정지 질량)과의 확고한 관계를 보여주려면 “정지 질량_E (rest mass)”가 무엇을 지시하는지가 확고하게 결

48) 또 Putnam은 인과 개념이 설명(explanation)이란 개념에 의존하고 있으며, 후자와 더불어 전자도 우리의 관심 및 가치에 대해서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세계가 그 자체로서 인과적 구조(causal structure)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e.g., Harman 1982)은 세계 자체가 정신의 특성인 합리성 및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으로서 이미 실재론일 수가 없다.

49) 또 이런 단어들이 한 계열(link)을 이루고 있어서, 이것들 중에서 하나에 대해서 특정한 해석을 받아들이면 나머지 단어들에 대한 해석 체계도 결정된다 (예컨대 “gavagai”와 “is the same as”).

정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Field는 “정지질량”에 관해서도 “질량_N”에 대해서와 같은 주장은 하겠지만, Field의 경우 Einstein이론의 단어들 또한 부분 지시 관계를 가진다는 주장은 Einstein이론이 보다 나은 이론으로 대체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즉 Einstein이론이 최선의 meta-언어가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최선의 이론 T₁ 즉 최종의 meta-언어라고 하더라도 이론 자체가 그 단어의 지시체를 결정해 주지는 못한다는 데 있고, Field의 입장은 이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다.

4. 후천적 실재론과 그 비판

Quine과 Putnam이 주장하는 TUR은 우선 초험적 인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 TUR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과학적 방법 이상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단어가 어떤 정신-독립적 대상 (mind-independent objects)을 확고하게 지시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앞에서는 이런 입장을 대표하는 한 철학적 경향이 실제로 어떤 문제에 부딪치는지를 살펴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적 지시 관계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Field가 지시 관계의 환원을 요구하는 배경을 살펴 보면 드러난다. 물리주의자들은 지시 관계가 환원 가능한 경우에만 진리 개념을 받아 들일 수 있다. 이때 받아들여진 진리 개념을 Field는 진리 대응설의 진리 개념이라고 한다(1974, 200). 진리 대응설이 실재론의 적어도 필요 조건이라면, 위에서 살펴 본 문제는 어떤 형태의 실재론(즉 물리주의)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후천적) 실재론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 암시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Putnam은 실재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실재론의 전제 : “세계는 정신-독립적 대상들의 확정된 전체로 이루어져 있다” (1981b, 49).

우리는 이 전제를 사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신-독립적 대상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로써 실재론에 관한 Putnam의 좀 다른 설명이 수용되는 셈이다.

실재론의 전제’ : “우리는 우리의 정신과 독립한 그 자체로서의 사물들에 관해서 생각하고 또 말할 수 있다.” (1982b, 141).

어쨌든 실재론의 입장에서는 :

- (I) 세계가 그 자체로서 여러 대상들로 이루어진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 (II) 이 대상들 (본체계의 대상들, noumenal objects : 이하 N-대상으로 약칭)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입장에 선다면,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문장의 진리가 단어(또는 사유-기호, thought-sign)와 N-대상들(혹은 그 집합) 사이의 지시 관계를 통해 설명되는 진리 대응설

을 받아들일 수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시 능력을 갖게 되는가?” (how we can refer) 하는 것이다. Putnam₁이 실재론을 옹호하는 도중에 이 문제가 절박한 것으로 대두됨을 보았고, 이 문제에 관한 Putnam의 고찰이 현대의 실재론자들인 물리주의자들을 논박하고 있음을 보았다. Putnam₂은 “지시 관계가 단일하게 결정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일한 지시 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어와 대상 사이의 지시 관계는 확정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런 주장은 결국 대상들이 그 자체로서 그에 합당한 이름(“진짜”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된다. Putnam은 이것을 “주술 지시론” (magical theory of reference) 라 부른다. 그리고 일련의 사유 실험을 통해 이 입장이 옳지 않음을, 우리가 이런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

개미가 우연히 Winston Churchill의 모습을 모래 위에 그렸다고 하자. 이것이 Churchill에 관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리라는 것이다. 이 사유 실험을 점차 복잡하게 만들어 감으로써 물리적 기호(physical sign)뿐만 아니라 심리적 기호(mental sign), 나아가서 일정한 통사 구조를 지닌 기호 – 체계조차 그 외형 만으로 그것이 의미있는 것, 지시체를 가진 것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두 개의 상이한 입장이 예상된다.

첫째, 이들이 대상을 지시하는 기호 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의도하에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의도(intention)란 지시 능력을 설명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시 능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앞에서 지적했다.

둘째, 개념(concept)이란 어떤 개별자(particular)가 아니라 “기호를 사용하는 방식”(ways of using sign)이라는 Wittgenstein적인 주장이다. 이것은 Putnam₂이 받아들이는 입장이지만, TUR은 바로 이 주장을 침착하게 추궁한 결과다. 이런 입장에서는 주술적 지시론으로서 논박하려고 한 TUR이 옹호되는 동시에 실재론이 논박된다.

어쨌든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주술 지시론을 교수하려고 한다면, TUR에 의거해서 다음 두 가지 입장이 남아 있을 뿐이다.

첫째, 비자연적(non-natural), 초험적 인식 능력을 받아들이는 초월적 형이상학(transcendental metaphysics) : 이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둘째, 우리의 단어들은 확고한 지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여러 대용 관계 중 어느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회의주의(scepticism) : van Fraassen (1982, 25)이 지적하듯, “오늘날 회의주의의 주된 역할은 귀류 논증에 있다 : 만약 어떤 입장이 회의주의에 이른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그 입장은 논박된 것이다.” 회의주의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면, 하필 어떤 대상을 지시한다는 사실만은 고집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cf. Putnam 1982 c, 43) 이제 실재론은 TUR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임이 드러난다는 것이 Putnam의 결론이 된다. 이 글에는 Putnam의 실재론 논박에 있어서 TUR에 의거한 이 논증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우선 이 논증이 Putnam의 철학사적 위

치를 정돈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고, 다음으로 Putnam의 여타 논증들은 이것의 비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N. Putnam의 실재론 논박(II)

앞에서 본 실재론 논박의 근거는 TUR이고, 다시 TUR의 부분적인 근거는 비표준적 해석이 있음을 보여주는 Löwenheim - Skolem 정리이다. 이 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Pearce / Rantala (1982a 및 1982b)가 지적하듯 과학 전체, 나아가서 우리의 전 신념 체계를 1차 술어산(first-order predicate calculus)의 범위내에서 형식화(formalized)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떤 제한된 언어 체계의 특성을 자연 언어에 강요하는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런 지적은 Quine이나 Putnam을 결정적으로 물리친다기보다는 이들이 실제 자연 언어에서 미확정성의 예를 찾기에 부심한 까닭을 설명해 주는 한편, Putnam이 거듭 강조하듯 철학적 논증이 결정적이고 직접적일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철학적 논증은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에 대한 반대 논증이고, 따라서 원칙상 대인 논증이다. 앞으로 다루게 될 것이지만, 상이한 존재론적 함축을 가지면서도 경험적으로는 동등한 기술 체계들(equivalent descriptions)이 있다는 사실은 TUR에 대한 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Putnam의 주된 근거는 Löwenheim - Skolem 정리임에 틀림없고, 따라서 앞에서 본 것을 “모형 이론에 입각한 실재론 논박”(model-theoretic argument against realism)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Putnam의 실재론 논박들 중에서 이런 명칭으로 불리운 것은 좀 다른 것이다. 여기서는 바로 이 논박과 더불어, (Goodman의 영향이 가장 두드러진) 동등한 기술 체계의 존재에 입각한 실재론 논박을 살펴보기로 하자. 서로 관련된 이 세 논증들을 살펴보면 Putnam의 실재론 논박은 모두 설명하는 셈이다.

1. 환각에 의거한 논증(argument from illusion)과 실재론적 진리 개념

실재론의 특징은 전적으로 비인식적인, 인식 초월적인 진리 개념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Putnam이 말하는 진리 대옹설은 실재론적 진리의 이런 성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진리설이다. 어쨌든 실재론은 정당화됨과 진리 사이의 현격한 차이를 받아들인다. 증명 또는 결정적 검증(conclusive verification)을 정당화의 모범으로 삼는 Dummett에서는 이것이 검증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참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규정되는 반면, 비결정적 확률적 검증(probabilistic verification)을 받아들이는 Putnam에서는 이렇게 해서 정당화된 이론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현재의 이론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은 보다 나은 이론이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주장은 실재론과 반-실재론 사이에 중립적인 것임을 앞에서 “이론-상호적”이라는 개념을 빌어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러므로 실재론의 결정적 특징은 인식적 관점에서 최상의 이론 T_1 가 있다고

하더라도, T_1 조차 거짓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있다. 이런 주장을 가능케 하는 실재론적 진리 개념에 대한 옹호는 전통적으로 회의주의의 옹호와 병행한다. 회의주의의 책략은 착각의 경우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는 “환각에 의거한 논증”(argument from illusion)이다. 이 논증은 오늘날 컴퓨터 공학의 발달에 힘입어 공상 과학(science fiction)으로 제시될 수 있게 되었다.

X 는 두뇌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신경 말단들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X 는 마치 자신이 나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신체가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 즉 지각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일하다. 또 이 컴퓨터는 매우 “영리”해서, X 가 그때 그때 지각 내용에 따라서 예컨대 “손을 들라”는 지령을 내리면, 손이 들리는 것처럼 느끼도록 전자 신호를 보내 준다. X 는 자신이 외부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X 가 지각하는 것이 나의 지각과 동일한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이때 X 는 자신이 “통 속에 든 뇌”(a brain in a vat)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X 에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즉 나와 동일한 이론을 가지는 것이—합리적(reasonable)이고, 또 정당화된 것이다. 그렇다면 X 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이론(ideal theory for X) 조차도 사실은(really) 거짓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사실은(really) X 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나도 통속의 뇌인지 모른다. (I might be a brain in a vat)⁵⁰⁾ — 이를 V-가설이라 약칭하자.

이 V-가설에 관한 Putnam의 반박은 앞에서 설명한 지시론의 결과를 도입함으로써 제시된다.

(1) X 는 자신이 통 속의 뇌라고 생각하거나 말할 수 없다.

자신이 통 속의 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X 가 자신의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물체로서의 통을 지시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기에는 X 의 심리 상태(psychological state)가 X 가 통 속의 뇌라고 생각하는 나의 심리상태와 같다는 것—또는 X 가 나와 동일한 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서는 불충분하다(TUR). 만약 주술 지시론이 옳다고 한다면, X 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건 그가 사용하는 단어(예컨대 “나무”)는 (통 밖의) 나무를 지시하게 되고, 이런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통 속의 뇌”라고 생각하고 또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주술 지시론 또한 이미 배척한 바 있다.

한편 자기와 어떤 상호 작용(causal interaction)이 있는 대상(또는 그것과 같은 종류)만을 우리가 지시할 수 있다는 지시 능력의 제약을 받아들인다면, X 가 지시할 수 있는 것

50) Putnam 자신은 이 문제를 복수(“we might be brains in a vat.”)로 다루고 있지만, 여기서는 단수로 다룸으로써 문제를 단순화시키자.

은 예컨대 물질적 대상으로서의 나무가 아니라 나무의 심상⁵¹⁾ (*trees in the image, tree-image*)에 불과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X의 단어 “통”이 지시하는 것은 X가 들어있는 물체로서의 통이 아니라, 이 단어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것, 즉 통의 심상에 불과하다. X는 비록 개별적 심리 상태에 있어서는 [나는 통 속의 뇌]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구성요소들의 지시체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동일한 심리 상태가 표현하는 “X가 통속의 뇌”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2) 내가 만약 통 속의 뇌라면, 나는 자신이 통 속의 뇌라고 생각할 수 없다.

자신이 통 속의 뇌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 까닭은 내가 통 속의 뇌가 아니기 때문이다. V-가설은 주장되려고 한다면 어쨌든 사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사유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가 통속의 뇌가 아니어야 한다. 그러므로 V-가설을 주장한다는 것은 자기 모순적인 것이다. 따라서 V-가설은 위이다. (마찬가지로 X의 관념적 세계에서는 X 자신이 통 속의 뇌가 아니므로, X에게 사유 가능한 명제로서 “X가 통 속의 뇌임”은 거짓이다.)

우리가 가진 최상의 이론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은 우리가 전면적 환각의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사이비 가능성임이 드러난 이상 전자 즉 실재론은 일단 근거없는 주장이 된다. 한편 실재론의 문제를 직접 살펴보자. 앞에서 우리는 TUR을 옹호했다. 그래서 X의 단어가 반드시 우리의 단어와 같은 지시체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무력하게 만든 셈이다. 이제는 X의 단어들이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지시체(ex., 나무의 관념, 통의 관념)를 가지게 함으로써, X가 가진 최상의 이론이 참이 되도록 하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 예에서 보듯이 인식적으로 최선의 이론조차도 거짓일 수 있다는 실재론의 주장은 이미 배척한 바 있는 주술 지시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이 Putnam의 논증의 골자다.

Putnam은 최상의 이론 T_1 을 참으로 만드는 모형(model)을 설정할 수 있고, 또 T_1 은 가정상 실험 조건과 이론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모형이 “의외의 모형”(unintended model)이라는 실재론자들의 주장은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여기서는 V-가설의 실례를 들어 이 주장을 더불어 Putnam의 반박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이로써 드러난 것은 실재론자들의 구분(두 조건을 만족시키면서도 의도된 모형과 의외의 모형이 있다는 구분)이 Putnam이 이미 논박한 주술 지시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술 지시론을 논박한다고 실재론자들의 구분 자체가 폐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쨌든 지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건 상호 작용이 있어야 한다”는 소극적인 원리가 결국 반-실재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51) 혹은 이 심상을 일으키는 전기 충격(electronic impulses that cause tree experiences)이나 이 전기 충격의 근거가 되는 프로그램의 특성들(features of the program that are responsible for those electronic impulses).

Dummett(1979, 16) 이 지적하듯 실재와 현상의 구분은 두 개의 상이한 분류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일견 참이지만 위인 이론과 참인 이론의 구분.

둘째, 상대적 기술 방식과 절대적 기술 방식의 구분.

정당화된 이론이 의임을 착각에 의거한 논증 혹은 지각의 상대성에 입각한 논증(argument from relativity of perception)으로써 보여줄 수 있다는 주장은 첫째 구분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주장을 더 밀고 나가서 최선의 이론 T_1 조차도 거짓일지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두 구분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⁵²⁾

2. 동등한 기술 체계들과 구조 실재론(equivalent descriptions and structuralist realism)

오늘날 대부분의 실재론자들은 경험적으로는 동등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상충하는 기술 체계들⁵³⁾(empirically equivalent but formally inconsistent descriptions : 이하 EFD로 약칭)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어쨌든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간의 공분모인 불변항(invariants)에로 돌아갈 수 있다. 마치 지구 자체의 성격 때문에 여러 지도 작성법이 있을 수 있듯이, 이 불변항이 기술하는 세계 자체의 성격 때문에 여러 상이한 기술 체계들이 가능하다. EFD를 허용하는 것이 세계 자체의 속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EFD들이 참이라는 것을 진리 대응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 T_1 과 T_2 가 EFD라고 하자. 가정상 T_2 의 단어들을 어떤 대상을 지시한다. 문제는 T_1 의 T_2 에로의 상대적 해석(relative interpretation, 즉 번역)의 갯수가 하나 이상이라는 데 있다. 이제 T_1 의 단어들이 무엇을 지시하는지를 결정할 수가 없다. 이 문제는 옳은 기술 체계가 하나 뿐일 경우에도 여전히 발생한다. T_1 의 T_2 에로의 상대적 해석 방식도 여러개이다. 그러나 EFD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 여기서 어느 한 쪽의 단어들이 지시 관계를 가진다고 전제하더라도, 나머지 이론의 단어들의 지시 관계가 불확정적이다.

한편 EFD가 가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세련된 실재론자(sophisticated realists)들이 EFD에 대해서 가졌던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한다고 해 보자 : 이런 해석 체계들은 모두 다 옳다 — 이것이 다시 세계 자체의 성격이 된다. 따라서 단어들이 대상의 “영상”(image)이라는 생각은 포기해야 한다. 그렇지만 문장의 진리치는 상이한 해석 체계들이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존된다. 이제 실재론은 문장의 진리치가 객관적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응호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⁵⁴⁾ 과학이 다루는 것은 대상자

52) cf. Putnam (1979c, 611 no.6) 의 “folk story”에 관한 언급.

53) EFD의 정의 및 실례는 Putnam(1983c)를 보라.

54) 이런 입장이 바로 Pearce / Rantala(1982 a, 48)가 암시하는 “구조 실재론”(structuralist realism)이라 생각된다. 또 앞에서 든 Quine의 예문 말미도 비슷한 입장을 시사한다. cf. Quine (1969c, 45)

체가 아니라 대상들 사이의 관계이다. 문장은 이런 관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진리치는 우리의 인식 능력과는 상관없이 실재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진리 대응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대응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진리 대응설의 골자는 “우리의 문장은 객관적 실재에 의해 참이 된다”(our sentence is made true by objectively existing reality)라는 원칙에 있다. 이 원칙은 단지 규제적 효용만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의 진리치가 객관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주장은 적어도 이런 함축을 가진다: 우리가 알진 모르건 진리치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런 입장이 예상된다는 것은 실재론의 특징에 관한 Dummett의 견해가 매우 앞선 것 이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가장 소극적인 형태의 실재론에 대한 Dummett의 비판은 이미 앞에서 다루었다. 이제 Putnam의 입장을 살펴 보자.

(1) Putnam은 여러 개의 EFD들이 있다면, 기술 체계가 바뀜에 따라 같은 문장이 서로 다른 진리치를 부여받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런 문장은 세계의 절대적인 성격이 아니라 이론 상대적인 성격 밖에 표현하지 못한다. 또 같은 사실에 대한 동등한 기술 체계들은 무한히 많다. 그래서 세계의 절대적 성격은 점점 더 줄어 들어서, 세계 자체란 결국 Kant가 말하는 본체계(noumena)와 같은 것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론 독립적인 세계의 모습(how THE WORLD is)을 말할 수 없게 된다면, 이론들이 [동일한] ‘세계’에 관한 기술 체계라고 하는 말은 공허한 것이 된다”(Putnam 1979 d, 132 : 원문 강조).

Putnam의 이런 논박이 결정적인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이것은 Goodman(1978), Rorty(1972) 등이 즐겨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논박이라는 점을 지적해 둔다. Quine(1981c)이 상이한 기술 체계가 같은 단어를 포함할 수 없게 함으로써 형식상 상충하는 EFD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⁵⁵⁾

(2) 단어와 대상 사이의 지시 관계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문장의 진리치는 여전히 객관적이라고 주장하는 실재론자들은 우리의 이론 체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불완전성, incompleteness) 때문에 문제에 빠진다. 우리의 이론 체계는(단어의 지시체를 결정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한 문장의 진리치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Gödel

55) EFD를 받아들이는 실재론자들은 EFD가 Putnam이 말하는 바 “사소한 의미의 자의성”(Trivial Semantic Conventionality)의 예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Quine의 이런 시도에서 암시되고 있다. 사소한 의미의 자의성이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지금과는 다른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EFD가 사소한 의미의 자의성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처음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경험적 사실(예컨대 시—공의 상대성) 때문에 서로 다른 사실을 표현하려고 한 말들이 사실은 같은 사실을 표현하게 된 경우(또는 그 반대 경우) —이다.

의 불완전성 정리(Incompleteness Theorem)이 보여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장이 객관적 진리치를 갖고 있다는 주장은 단어의 지시체가 객관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주장과 마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즉 선천적 실재론이나 회의주의를 수용해야 한다.

이제 Dummett과 Putnam에게서 일관된 문제 의식을 보게 된다. 이들에 이르러서 실재론의 입장은 우리의 마음 바깥에 세계가 있다는 것 (externality of the world)이 아니라, 세계가 어떤 확고한 구조(determinate structure of the world)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세계가 우리의 마음 밖에 존재함으로써가 아니라, 확고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문장들의 진리치가 이미 결정되어 있게 된다. 수직 대상에 관한 실재론이 어떤 시공 영역에 수학적 대상들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듯이, 물질적 대상에 관한 반—실재론이 반드시 물질적 대상이 (만약 존재한다면) 우리 정신의 한 형태로서 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또 Putnam과 Dummett의 반—실재론은 우리가 사유함으로써 대상이 창조된다는 입장이 아니다. 아직 구조지워지지 않은 채로 있는 소재에 우리의 탐구가 가해지고, 또 우리의 합리적 본성에 따라서 그때 그때 적절한 선택이 취해짐에 따라 비로소 어떤 구조, 어떤 대상을 가진 세계가 성립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이제 Putnam과 Dummett의 실재론에 대한 일련의 논박이 불러들이는 반—실재론의 입장을 살펴 보자.

V. 반—실재론과 진리 개념

Putnam과 Dummett의 비판은 진리 개념이 우리의 인지 능력과 매울 수 없는 간격을 가진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개념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고 어떤 종류의 진리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문장의 발언이 어떤 상황에서 옳은(correct)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⁵⁶⁾ 진리 조건적 의미—이론에서는 모든 의미론적 성격이 문장의 진리 조건으로써 설명된다. 발언의 옳음과 그름도 이를 통해서 설명된다. 이런 설명 방식은 실재론적 진리 개념을 함축하고 있기에 부당하다고 논하는 한편, 옳은 발언과 그른 발언의 구별을 유지하려고 하는 데에 반—실재론적 진리 개념을

56) Putnam의 주장에 따르면, 옳은(correct) 발언과 그른(incorrect) 발언의 구별이 없다면 그 것이 한갓 앵무새 소리가 아니라 진술(statement)이고 언어라고 생각할 깊이 없다. 그리고 진술을 하고 언어에 따라서 사유한다는 것은 그 주체를 인격체(person)로 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 점은 상대주의에 대한 Putnam의 논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나타나듯이 Putnam은 우리가 인격체라는 사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언어로써 사유한다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논하고 있다. Putnam은 “사유의 전제 조건”(preconditions of thought)을 탐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Putnam의 논의의 기본적 성격은 선천적 논증(transcendental argument)이다. 다만 Kant와는 달리 철학적 논증에서 경험적 전제들을 자유로이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 거론되는 까닭이 있다.

Dummett은 진리 조건적 의미-이론에 대한 대안으로서 검증주의 의미-이론(*verificationist theory of meaning*)을 제시한다. 이것은 논리 상수의 의미에 대한 직관주의적 설명 방식을 확대한 것인데, 문장의 의미를 아는 것을 문장이 정당화(*justified*) 즉 검증(*verified*)되어질 상황을 아는 것으로 설명한다.

어떤 문장의 검증 조건이 만족되었다는 것, 즉 우리가 그 문장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또는 반증조건의 만족)은 원칙상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검증 조건에 대한 지식은 완전 발현이 가능한 것이다. 문장의 검증이란 문장의 용도의 일종이고, 이 용도를 기반으로 개개 문장에 특유한 나머지 용도를 설명하는 검증주의 의미-이론은 “의미는 용도”라는 Wittgenstein의 슬로건에 입각한 “완전 발현의 원칙”(*Full Manifestation Principle*)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이론에서는 객관적, 실재론적 진리 개념을 전제로 삼지 않으며, 검증 조건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진리 개념을 받아들인다. 발언의 옳고 그름 또한 그 검증 또는 반증 조건으로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진리는 검증됨이다. “어떤 문장을 발언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언명(*assertion*)이 정당화 되어질 수 있는 경우에 그 문장은 참이다”(Dummett 1979b, 129),

Putnam은 Dummett의 의미-이론이 단어의 객관적 지시 관계가 야기하는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Dummett의 의미-이론은 동시에 Putnam의 반론도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다. 이 이론에서는 지시 관계가 설명 모델의 일부로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시론의 문제는 아예 제기되지도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점은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에서 진리 잉여설 자체가 잉여로서의 진리 이상의 어떤 실질적 진리 개념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았다. Dummett은 이 실질적 진리 개념이 실재론적인 것이 아니라 정당화됨이라는 반-실재론적 진리 개념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반-실재론적 진리 개념을 전제로 진리 잉여설의 일부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진리” 또는 “지시”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은 아래 T-문장 및 R-문장의 ‘참임’(정당화된 것임)을 맑으로써이다.

(T) 눈이 흰 경우에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눈이 희다”는 문장은 참이다.(“Snow is white is true iff snow is white.”)

(R) “눈”은 눈을 지시한다 (“Snow” refers to snow).

실재론적 진리 개념을 요하지 않아도 대상 언어에 대한 이해가 설명될 수 있다면, T-또는 R-문장을 “진리”, “지시”에 대한 정의로 사용함으로써 이 단어들을 도입할 수 있다. 전자의 설명에 필요한 진리 개념(정당화됨)은 우리의 언어 체계가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하는가를 다루는 한편, 후자의 진리 개념은 이미 언어의 일부가 이해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이론 체계 속에 서 있을 경우에만 도입할 수 있고, 언어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두 가지 상이한 기능을 구별하기 위해서 전자는 “외부 진리 개념”(*external no-*

tion of truth), 후자는 “내부 진리 개념”(internal notion of truth)이라 부를 수 있겠다.⁵⁷⁾ 실재론의 문제를 다룰 경우에 중요한 것은 분명 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자를 언급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반-실재론의 형이상학적 입장을 설명하기가 용이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Putnam이 지시론에서 제기한 문제는 대상이 우리의 인식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성립해 있는 것이라면, 그런 대상과 우리 언어가 지시 관계에 있다는 것이 해명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한편 위 문장(R)은 반-실재론을 받아들일 경우 지시 관계에 대한 해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반-실재론적 의미-이론이 지시 개념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 Dummett(1979 c, 221)⁵⁸⁾의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Putnam의 중심 테마는 “어떻게 지시 관계가 가능한가?”라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Kant가 선천적 종합 판단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실을 설명하려면 대상이 인식에 따르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듯이⁵⁹⁾, Putnam은 지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자신이 취하는 내재주의 관점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진리개념에 관한 Putnam의 입장을 살펴보자.

앞에서 보았듯이 Dummett은 진리 개념이 인식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서는 이 문제를 떠난다. 이는 마치 진리를 현재에 있어서 정당화됨과 동일시한 듯한 인상을 주지만 상기 인용문의 가정법 시제가 보여주듯이 Dummett 스스로 그런 견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비-인식적 진리개념을 배척해 버린 이상 나머지 문제는 Dummett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정당화됨”(justification)과 Putnam이 선호하는 용어로 “합리적 수용 가능성”(rational acceptability)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진리”와는 다른 개념이다. 우선 “합리성/정당성”은 그 사용자에 대해서 또 시점에 대해서 상대적인 개념이다. 또 합리성/정당성은 가부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도의 문제이다. 그래서 Putnam은 진리란 합리적 수용 가능성의 이상체(idealization of rational acceptability)라고 주장한다—인식적으로 이상적인 상태에서 정당화되는 것이 진리이다.

이 정의는 Peirce 처럼 과학적 탐구의 목표가 되는 이상적 이론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더우기나 이것이 하나뿐이라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는 것도 아니다. Putnam은 Goodman과 더불어 합리적 수용가능성을 지닌 이론(및 그 발전 계열)이 여러 개(pluralism)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상적 이론 또는 합리적 수락 가능성의 이상태는 진리 및 객관성에 관한 발언을 규제하는 원리(regulative ideal)의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이 극한치

57) 이것은 Dummett의 미간행 논문에서의 구별이라고 한다. Putnam(1980, 48).

58) “Within the reality we encounter, we may discern and pick out by names, descriptions, demonstrative phrases, etc. objects (in the most general sense of the word)” (저자 강조). 또 Putnam의 다음 언급 참조 : “[what a sentence is about] is an intra-theoretic (sometimes inter-theoretic) question.” (1979a, 227; 원문 강조)

59) “Die Gegenstände müssen sich nach unserer Erkenntnis richten,” Kant, K. d. r. V. (Felix Meiner, 1956), S. 20.

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매우 높은 정도까지 또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충분한 정도까지 이 상태에 접근할 수는 있다.

Putnam이 반-실재론자인 것은 우선 최선의 이론조차도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물리치는 데 있고, 다음으로 최선의 이론이 단 한 개가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묘사하는 세계가 이미 존재한다는 Peirce식 실재론(Peircean realism)을 거부하는 데 있다. Putnam의 진리 개념하에서는 현재에 있어서의 정당화됨 밖에 거론할 수 없다는 상대주의 또한 배척된다. 현재의 이론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은 실험 조건과 이론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에 있어서 현재의 이론보다 우월한 이론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인 경우에는(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옳은 주장이다. Putnam의 입장은 실재론과 주관주의(상대주의)의 중도, 즉 반-실재론적 객관주의의 입장이다.⁶⁰⁾⁶¹⁾

이제 다시 지시론의 문제로 돌아 오자. 실재론의 기본 입장은 “세계가 정신 독립적 대상들의 확정된 전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지시 개념에 따른다면, 우리가 정신 독립적 대상에 대한 지시 관계와는 상관없이 언어를 이해하고, 또 세계에 관한 이론을 구성해 냈을 때에야 비로소 이 언어 / 이론을 배경으로 삼고서 무엇이 무엇을 지시하는지를 말한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곧 Putnam이 말하는 바, “내재주의 관점”(Internalist Perspective)에 선다는 것을 뜻한다.

내재주의 관점 : “세계가 어떤 대상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은 어떤 이론 체계나 기술 체계 내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다.” (*What objects does the world consists of? is a question that it only makes sense to ask within a theory or descriptions*) (Putnam 1981b, 49)

이것은 번역 / 해석의 문제를 교찰한 다음 지시 관계에 관한 물음은 “어떤 배경 언어에 상대적인 것으로서 물을 경우에만 의미있는 것”(Quine 1969c, 48)이라고 주장하는 Quine의 “상대주의 존재론”(ontological relativity)의 입장 바로 그것이다.⁶²⁾

또 어떤 언어 / 이론이 이해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R-문장이 당연히 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 이론의 단어들이 무엇을 지시하는지, 그것이 어떤 존재론적 함축을 가지는지도 말할 수 있다 :

60) 여기서 보듯이 Putnam의 입장에서는 진리가 현재 이론에 대해서 상대적이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론-상대적(theory-relative)이다. cf. Smart(1982,1). 이런 것을 우리는 이론-상호성(inter-theoretic)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61) 이것이 Putnam의 내재주의 관점을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고 드러내는 방식이다. 여기서는 진리치의 할당이 안정(과학의 수렴) 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자신을 “내재적 실재론자”라고 부르는 Putnam의 논거가 된다.

62) Quine에 있어서 이론(theory)은 존재론적 함축(ontological commitment)을 가진다. 그래서 “무엇이 있는가?”라는 물음은 :첫째, 경험적 증거에 입각해서 어떤 이론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하고, 둘째 이 이론이 어떤 존재론적 함축을 지니는가 즉 이 이론이 옳은 이론이 되면 그 솔어들의 지시체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결정함으로써 대답된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물음이 배경 언어에 대해서 상대적이라는 것은 곧 상대주의 존재론을 뜻한다.

(R') “snow”는 눈을 지시한다 (“Schnee” refers to snow).

그러나 이 R'-문장은 영어(독일어)가 우리 말(영어)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해석(번역)체계가 단일하지 않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 보았다. 그래서 Quine은 지시 관계가 배경 언어 뿐 아니라 번역 체계(translation scheme)에 대해서도 상대적임을 지적한다. 결국 “존재론은 이중의 상대성을 지닌다”(Ontology is doubly relative ; Quine 1969c 48). 그리고 이런 입장이 단순히 실재 세계는 이미 어떤 대상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지시는 상대적일 수 밖에 없다는 식의 불가지론이⁶³⁾ 되지 않으려면, 무명으로 태어나서 이름지워지기를 기다리는 대상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 자체가 이미 이론의 구성물이라는 Putnam의 결론을 요구한다.

내재주의 관점에서도 기호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누구에 의해 사용되는지와는 상관없이 대상들과 본질적인(intrinsically)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 언어 사용 단체가 실제로 사용하는 기호는 그 사용자들의 개념체계 내에서 특정 대상과 대응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대상’이란 개념 체계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기술 체계들을 도입함으로써 세계를 대상들로 가르는 것은 우리들이다. 기호 ^{뿐만 아니라} 대상 또한 기술 체계에 대해서 ^{내재적인} 것이다. 이기 때문에, 무엇이 무엇과 결부되어 있는지를 말할 수 있다(Putnam 1981b, 52).

이런 입장은 그 자체로서의 세계가 우리의 인식 작용 및 이론 구성과 상관없이 어떤 대상들로 이루어진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주장을 부정하는 것이다. Putnam의 반-실재론 또한 이미 구조지워져 있는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서 Putnam과 Dummett이 다시 수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Dummett의 반-실재론과 “실재에 관한 실재론적 모형의 차이점은 [그의 반-실재론에서는] 실재가 의미있는 모든 문장을 참이나 거짓으로 결정해준다는 의미에서 완전하고 확고한 구조(fully determinate)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Dummett 1979c, 221f).

맺는 말

우리는 실재론이라고 불리는 입장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지적함으로써 이 글을 시작했다. 최근에 나타난 Putnam과 Dummett의 연구는 여러 실재론 논쟁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한 시도이다. 이들은 실재론과 관련된 진리 개념을 밝히고, 그 바탕 위

63) Putnam(1983b, xiif)는 Quine의 입장이 이렇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해석과는 달리 대상 설정(object positing)이 문장의 자극 의미(stimulus meaning)와는 달리 우리 개념 체계의 특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Quine (1969b)에 주의할 것.

에서 실재론 대 반-실재론의 논쟁을 전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두 사람의 관점에 서서 실재론의 문제를 다루는 이 글의 첫번째 단계는 : (P1) 「실재론(또는 반-실재론)이 진리 개념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옹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다음 단계는 : (P2) 「실재론과 관련된 진리 개념이 어떤 것인지, 또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살피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물론 이런 입장들에 입각해서 : (P3) 「실재론을 옹호하거나 논박하는 것」이다.

(P1)의 문제는 서로 다른 입장들이 가지는 철학관과도 관련되는 가장 궁극적인 전제가 된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옹호나 논박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어떤 설득력 있는 입장을 하나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기될 수 있는 강력한 반론들을 살피는 길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런 입장 자체가 Descartes 아래 근세 철학을 지배해 온 제일철학 (*prima philosophia*)의 이념을 거부하는 데서 성립하는 것이기는 하다. 어쨌든 이 글에서는 (P1)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논박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우선 (P1)의 입장을 가정하고서 (P2)의 문제를 다룬 다음, 이런 노선에 대해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개의 반론들을 살펴보도록 (P1)의 입장을 해명하는 동시에 부분적으로 옹호하는 간접적인 방침을 택했다.

실재론은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진리 대응설(*correspondence theory of truth*)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진리 대응설은 일견 매우 설득력이 있지만, 엄밀한 이론으로서 제시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다.⁶⁴⁾ 그래서 실재론자들도 새로운 진리설(ex., 진리 잉여설, *redundancy theory of truth*)을 모색하는가 하면, 종래의 진리 대응설이 가진 난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로서 제기된 새로운 형태의 진리 대응설⁶⁵⁾은 실재론의 형이상학적 지반을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제 실재론 및 반-실재론과 진리설의 관계는 그다지 밀접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 지배적인 경향이 된 듯하다(Haack 1978, 94 ; Devitt, Field etc.). Tarski의 진리 정의 및 이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진리 잉여설의 대두는 이런 경향에 대해서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Putnam과 Dummett은 바로 이런 경향에 대해서 반동적인 위치에 서 있는 셈이다.

Putnam은 Tarski의 진리 정의에 힘입은 새로운 형태의 진리 대응설의 가능성은 시사하면서, 여기서 설명되는 진리 개념이 바로 실재론의 진리 개념이라고 본다. 여기서 진리는 정신-독립적 대상(mind-independent objects)과의 지시 관계를 통해 설명되는데, 이 진리 개념의 궁극적인 특성은 비-인식적(non-epistemic)이라는 것이다. 한편 보다 전통적인 형태의 진리 대응설에 주목하는 Dummett은 이제 진리 대응설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지만, 진리 대응설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양가 원리(principle of bivalence)는 받아들일

64) cf. G. Pitcher: "Propositions and the correspondence theory of truth," rp. in: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ed. by J. F. Rosenberg and C. Travis(Prentice-Hall, 1971) Davidson(1969) 및 Rescher(1973, 5ff).

65) 예컨대 J. L. Austin: 1950, "Truth," rp. in: *Philosophical Papers* (Oxford U.P.).

수 있고, 양가 원리를 보증하는 진리 개념은 실재론의 구성 요소라는 입장을 취한다.

여기서 보듯이 이들은 모두 실재론이 어떤 진리 개념으로써 특징 지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리 대응설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실재론의 진리 개념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도 일견 서로 다른 입장을 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우리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시비를 가리려 하지 않고, 그 차이를 우회해 버리는 방침을 택했다.

Putnam이 정의한 진리 대응설에서 진리 개념은 비-인식적인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그 진리 개념이 가지고 있는 한 개 특성일 뿐만 아니라, 진리 대응설에 입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하고 또 궁극적인 징표이다. 또 Dummett이 양가 원리를 실재론의 구성 요소로 삼는 이유는 효과적 결정이 불가능한 문장(effectively undecidable sentences)에 대한 양가 원리가 인식 초월적 진리 개념(recognition-transcendent notion of truth)을 함축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앞에서 밝혔다. 결정적 검증(conclusive verification)이나 결정적 반증(conclusive falsification)이 가능하지 않는 문장조차도 확고하게 참이거나 아니면 거짓(determinately true or false)이라는 것은 진리가 우리의 인식 능력을 초월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글에서는 Putnam이 말하는 바 비-인식성과 Dummett이 말하는 바 인식 초월성이 인식 초월적 진리 개념의 두 측면이라고 보았다(그리고 이런 진리 개념을 “실재론적”이라 부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진리 개념이 인식 초월적이라면, 결정적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참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결정적, 확률론적 검증(non-conclusive, probabilistic verification)에 입각한 최선의 이론조차도 거짓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실재론의 진리 개념이 무엇인가가 관한 Dummett과 Putnam의 견해에서 공통된 것을 추려낼 수 있다고 주장한 다음, 우리는 “이런 소극적 특성 이외에 그 진리 개념의 보다 적극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팔호쳐 버렸다. 우선 이 글의 목표가 진리 개념에 대한 토의로써 다루어지는 실재론 대 반-실재론의 논쟁을 고찰하는 데 있다는 점을 환기해 둔다. 실재론이 실재론의 진리 개념을 구성 요소로 갖는다는 것을 일단 전제한 다음 실재론의 진리 개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던지 간에 그것은 어떤 특성(인식 초월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 이상, 실재론은 인식 초월적 진리 개념을 함축한다는 입장 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⁶⁶⁾

그 다음 단계는 Putnam과 Dummett의 실재론 논박이 모두 진리 개념의 인식 초월성에 모인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Dummett이 실재론의 정의로 삼고 있는 진리 조건적 의미-이론(truth--conditional theory of meaning)은 양가 원리를 구성 요소로 삼고 있다. 양가 원리는 다시 실재론적 진리 개념을 함축하는 바, 이런 진리 개념을 함축하는 의미-이론은 완전 발현의 원칙(Principle of Full Manifestation)에 위배된다. 이런 구조

66) 실재론이 현상과 실재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데 입각한 입장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 글은 실재론이 진리 개념의 인식 초월성을 함축하리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를 지니고 있는 Dummett의 실재론 논박에 대해서는 상기 주장이 별로 무리가 없다. 그러나 Putnam의 경우에는 이 주장이 좀더 해명을 요한다.

Putnam은 실재론을 진리 대응설로 특징지운다. 이 글에서는 이 입장의 가부를 논하지 않았고, Putnam의 실재론 논박을 다룰 때에는 이 입장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했다. 그리고 진리 대응설의 기반이 되는 정신 독립적 대상파의 지시 관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들추어내는 것이 Putnam의 실재론 논박에 있어서 주된 것이라고까지 주장한 바 있다. 그렇지 만 구조 실재론(structuralist realism)의 입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지시 관계의 미확정성(underdetermination of reference)에 의거한 논박이 최종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 진리 개념의 인식 초월성만을 근거로 삼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실재론의 입장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진리 개념의 인식 초월성은 실재론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 즉 실재론자들이 물려설 수 있는 하한선이다. 그래서 진리 대응설을 단순한 규제 원리(regulative principle)로 채택할 경우에 나타나는 진리 개념의 인식 초월성을 논박함으로써만이, 실재론에 대한 논박이 완성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비록 Putnam에 있어서는 지시 관계 미확정의 원리에 근거한 논박이 주된 것이어서 다른 여타 논증들이 이를 전제로 삼아야 하지만, Putnam의 실재론 논박 또한 진리 개념의 인식 초월성에 대한 공박들(4장 1절 및 2절)로써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실재론의 진리 개념이 무엇인가에 관한 더 이상의 논의가 이 글의 목표로 보아 불요불급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어쨌든 실재론이 실재론적 진리 개념(RT)을 함축한다거나, RT가 실재론의 구성 요소라거나, 혹은 RT가 실재론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라는 결론이 가능하다면, 이제 RT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다룸으로써 실재론 일반(realism in general)에 대한 논박 및 이 논박에 대한 반론을 펼 수가 있게 된다. Putnam과 Dummett의 실재론 논박은 바로 이런 성격의 것이다. 이제 어떤 대상 영역에 판해서 전 실재론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먼저 이 논박을 물리쳐야 한다.

우선 실재론과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서로 이어져 있는 세 가지 입장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S1) 어떤 종류의 대상들은 우리의 인식 능력과는 상관없이 존재한다. 혹은, 어떤 종류의 대상들은 우리의 인식 능력과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세계(이하 N-세계로 약칭)의 구성원이다.

(S2) X라는 부류의 대상들은 우리의 인식 능력과는 상관없이 존재한다. 혹은, X라는 부류의 대상들은 N-세계의 구성원이다.

(S2') X라는 대상은 우리의 인식 능력과는 상관없이 존재한다. 혹은, X라는 대상은 N-세계의 구성원이다.

(S3) X라는 부류의 대상들은 N-세계의 궁극적인 구성원(ultimate constituents)이다.

(S3') X라는 대상은 N-세계의 궁극적인 구성원이다.

여기서 S2, S3은 각각 S1, S2가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것들 중에서 실재론 일반(realism in general)의 입장은 바로 S1이다.⁶⁷⁾ 또 S2는 주어진 부류의 대상 X에 관한 실재론의 입장이다. RT는 어떤 X에 대해서라도 S2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즉 S1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래서 RT를 논박한 결과로 나타나는 반-실재론의 입장은 결국 S1, S2, S3의 입장을 모두 배척하고 있다. 이런 반-실재론의 입장을 우리는 Putnam이 말하는 바 내재주의 관점(internalist perspective), Quine이 말하는 바 상대주의 존재론에서 찾았다. 여기서 지적하려는 것은 Putnam과 Dummett이 실재론 논쟁을 전리 개념의 차원에서, 즉 S1의 차원에서 다름으로써 실재론과 관련된 형이상학적 지형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Putnam과 Dummett의 반-실재론이 매우 새롭고 또 철저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실재론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여러 가지 형태의 환원주의(reductionism)라는 점을 상기하면 분명해진다. 환원·불가능성 논제(irreducibility thesis)에 입각한 소박한 실재론(naive realism : S3)과 환원주의 사이의 논쟁은 고작 S3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X에 관한 환원주의가 옳아서 X는 모두 Y에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은 X가 N-세계의 궁극적 구성원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뿐 X가 비궁극적 구성원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한다.⁶⁸⁾ 보다 중요한 점은 어떤 대상 X에 관한 환원주의가 다른 대상 Y에 관한 실재론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반-실재론 일반(anti-realism in general), 즉 내재주의 관점 하에서도 위 실재론의 세 단계에 상당하는 S1', S2', S3'를 형식상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Y에 관한 반-실재론을 전제로 한 X에 관한 환원주의도 가능하다. 그러나 S1에 대한 논박은 극히 최근에야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철학사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환원주의는 실재론에 입각한 환원주의라 생각된다.

한편 S1 또는 S2의 실재론과 환원주의의 관계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어떤 부류의 대상들 Y가 실재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경우 다른 부류의 대상들 X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X가 Y에로 환원됨을 보여주는 것, 즉 X가 말하자면 파생적 실재성을 지님을 보여주는 것이다.⁶⁹⁾ 또 궁극성과 단일성을 추구하는 철학에 있어서는 Y가 있다는 것이 곧 Y 일원론(monism)으로 흐르기 쉬운 것이어서,⁷⁰⁾ Y에로 환원되지 않는 대상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비록 정신 독립적 실재성 이외에 정신 의존적, 인식 상대적 실재성까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전자에 비해 후자는 지극히 미미한 것

67) S1은 실재론에 대한 Putnam의 정의와 대체로 일치한다.

68) 이때 X가 N-세계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X가 환원되는 방식에 따른다. 예컨대 행태주의(behaviorism)는 심리 상태의 비실재성과 조화하기 쉬운 반면, 심신 동일론(identity theory)은 심리 상태의 실재성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력한 이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Dummett (1982) 참조.

69) Berkeley가 당대인에게 주었던 인상파는 달리 Berkeley 자신은 자신의 관념론이 야말로 Locke의 인파적 실재론(causal realism)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회의주의)에 빠지지 않고 물질계의 실재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유일한 형이상학설이라는 방식으로 자기 입장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일 수 밖에 없다. 이제 실재론자의 구호는 “환원하라! 아니면 배척하라!” (Reduce, or repudiate!) 가 된다.

현대 영미 철학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실재론의 일종인 물리주의(physicalism)라는 것은 이 점에서도 드러난다. 심리 상태에 관한 이들의 입장이 구호의 전자(심신 동일론, identity-theory)라면, 가치론에 있어서 이들의 입장은 바로 구호의 후자(윤리 인식 부정론, non-cognitivism)에 해당하는 것이다.⁷¹⁾ 거꾸로 말해서 윤리학적 회의주의의 극복은 그 전제가 되는 물리주의 존재론을 물리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Putnam과 Dummett의 실재론 비판이 형이상학적, 존재론적 입장에 대한 분류 방식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한다는 것을 지적했고, 이 새로운 분류 방식에 의거해서 윤리학적 회의론의 배경과 전제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는 다만 물리주의의 논박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Putnam이 그의 반-실재론에 입각해서 가치의 객관성을 보장하려는 시도에 착수한다는 점만을 지적해 두자.⁷²⁾ 또 실재론과 반-실재론의 대립, 형이상학을 진리 개념에 대한 논의로써 다루려는 시도 등이 매우 근본적인 입장이어서 결정적인 응호가 불가능한 것이라면, 심신 이론에서 또 가치론에서 반-실재론과 실재론이 서로 설명력을 겨루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두 문제에 대한 Putnam의 입장은 자신의 기본 전제에 대한 간접적인 응호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 논문의 세 번째 단계가 되는 실재론 논박이 이 논문의 중심 과제가

70) 어쩌면 S1과 실재론에 관한 Putnam의 정의 (“the world consists of fixed totality of mind-independent objects”) 사이의 차이점은 바로 이 점-S1은 어떤 대상들이 있다고 하는데서 그치는 반면 Putnam의 정의는 그 대상들만이 있다는 것을 함축하려는 생각 하에 제시된 것이라는 점에 있는지도 모른다.

71) 현상론에서 물리주의에로의 존재론상의 큰 변혁에도 불구하고 윤리 인식 부정론이 고수되어온 이유도 이제 암시된다. 두 개의 존재론이 모두 실재론에 뿌리박고 있다.

72) Putnam(1981b). 영미 철학계에서 윤리학적 회의론을 물리치려는 시도도 상당히 활발했지만, 필자가 아는 한 물리주의 존재론 및 자연 과학적 명제에 관한 진리 대응설을 목인하고 있는 것 이기에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아마 J. Searle로 보인다. Searle은 brute fact의 존재론적 지위에 관해서 캐물어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그의 탁월한 논증이 가치와 사실의 양분법의 근거를 허물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윤리 인식 부정론을 극복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주목할 것. 한편 가치론의 본성에 관한 분석적 연구를 제쳐두고 규범 윤리에 기여한 Rawls의 작업은 개념비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작업이 윤리 인식 부정론과 이론적으로 정면 대결한 것은 아니다. 물론 그의 방법론에 관한 언급들은 매우 앞선 것이다. 이것들은 과학 이론에 관한 Quine의 모델에 입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모델은 동시에 Putnam의 그것이기도 하다. cf. Putnam(1981b, 104). 방법론에 관한 절들에서 Rawls 자신은 자기의 주된 방법이 정합 논증(coherence argument)이라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학계에서는 이 논증의 타당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까닭은 바로 물리주의에 기인한다.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할 수 있는 Putnam의 논의들 및 Emotivism의 논거를 정면 논박하는 Putnam의 작업들은 윤리 인식 부정론자들과의 정면 대결이라는 점에서 전례없는 것이라 보고 싶다.

되는데, 여기서 Putnam과 Dummett의 실재론 논박을 다시 검토할 수는 없다. Putnam의 다음 구절은 이 일련의 논박을 대변하고 있다 : “만약 우리가 인식 초월적 진리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말할 수 없게 된다”(1982d 197). 이런 진리 개념에 대한 “파악”(grasping)이 언어 이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Dummett), 지시 문제에 있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Putnam, Ⅲ장), 또 과학적 탐구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Putnam, Ⅳ장)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실재론은 포기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이들의 실재론 논박이 인식론적 고려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경향이 “범주 혼용”(category mistake)에 근거한 것이라는 가상의 반론에 대해서, 실재론이 비록 형이상학적 입장이기는 하지만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논박을 시도했다 ; 쟁점은 실재론이 근거있는 것, 옹호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P1)에 대해서 제기된 또 한가지 반론은 실재론과 진리 임여설이 양립 가능하다는 전제에 입각한 것이다. 우선 진리 대옹설 아닌 RT가 진리 임여설과 반드시 상충하는지는 분명치 않다⁷³⁾는 점을 언급해 두자. 어쨌든 Putnam과 Dummett은 진리 임여설을 논박함으로써 이 반론을 물리친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진리 임여설에서처럼 T-문장으로써 진리 개념을 설명하려면, 대상 언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상 언어의 이해가 어떤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언어 이해론에서는 언명의 옳음(correctness of an assertion)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진리 개념을 끌어들여야 한다. 이 진리 개념은 대상 언어의 이해를 전제로 T-문장에서 설명되는 진리 개념, 즉 임여로서의 진리 개념(redundant notion of truth)일 수가 없고, 실질적 진리개념(substantial notion of truth)이어야 한다. 결국 T-문장으로써 진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질적 진리 개념이 전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T-문장들의 총체가 진리 개념의 모든 것을 해명한다는 진리 임여설은 잘못된 것이다.

Tarski의 진리 정의와 더불어서 진리개념은 상이한 형이상학적 입장들에 대해서 중립적이라는 견해가 대두했다. 이 견하는 T-문장 및 이것을 공리로 연역해 내는 Tarski식 진리 정의가 형이상학적 입장에 대해서 중립적이라는 입장에다가 진리 임여설이 추가될 경우에 나타나는 귀결이다. 사실 T-문장은 어떤 진리 개념을 받아들이건, 즉 대상 언어에 대한 이해론이 어떻게 구성되건 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때 정의되는 “참”이라는 단어는 대상 언어의 이해론에서 전제가 된 실질적 진리 개념의 특성들을 이어 받게 되는 것이다.⁷⁴⁾ 그러나 진리 임여설의 잘못이 드러난 이상, T-문장이 형이상학적으로

73) 사실 Devitt가 진리 임여설에 입각한 실재론자의 예로 들고 있는 Quine은 양가 원리가 실재론의 특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1981b, 91).

74) Tarski식 진리 정의는 T-문장 이외에도 고전 논리의 법칙들을 전제로 해야된다. Putnam (1975 a, x)는 실증주의적 진리 개념(“leading to the true predictions”)이 고전 논리에 위배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어쨌든 Putnam은 Tarski식 진리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서로 다른 두 진리 개념(실재론의 진리 개념과 직관주의 진리 개념)을 들고 있다 (1978b).

중립적이라고 해서 진리 개념 자체가 중립적이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진리 잉여설을 논박한 Putnam과 Dummett의 입장은 T-문장 및 Tarski식 진리 정의는 형이상학적 논쟁에 대해서 중립적일 수가 있지만, 이해론의 중심 개념으로서의 실재론적 진리 개념은 형이상학적 논쟁에 대해서 중립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T-문장은 어떤 신질적 진리 개념을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을 근거로 “참”이라는 단어가 새로이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도입된 “참”이라는 단어는 대상 언어를 meta-언어에로 확장시켜서, “참”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meta-언어의 문장의 언명 조건(assertibility condition)을 대상 언어의 문장들의 언명 조건과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 즉 “진리”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서로 다른 가능을 가지는 두 개의 개념이 있는 것이다. 이 두 개념을 구분하기 위해서 Dummett은 대상 언어의 이해론에서 나타나는 실질적 진리 개념을 “외부 진리 개념”(external notion of truth)이라 하고, 후자의 진리 개념 즉 대상 언어를 메타 언어에로 확장시키는 진리 개념을 “내부 진리 개념”(internal notion of truth)이라고 한다. 위에서 든 전해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통찰은 바로 T-문장 및 내부 진리 개념이 형이상학적 논쟁에 대해서 중립적이라는 것을 간파한 데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진리 개념의 두 측면을 구별하고 나면, 형이상학적 입장을 특징지울 수 있는 진리 개념은 바로 외부 진리 개념이라는 것 또 내부 진리 개념은 그것이 전체로 삼고 있는 바 외부 진리 개념의 형이상학적 속성을 이어받는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제 (P1)에 반대하는 입장의 또 한 가지 논거를 불리칠 수 있겠다. 만약 T-문장이 진리 대옹설과 동일시된다면, 심지어 진리 대옹설조차도 형이상학적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반론이 예상되는 것이다. 혹자는 그 대표적 예로서 Kant를 들 것이다. Putnam이 최초의 반-실재론자로 보고 있는(1981b, 60) Kant 조차도 진리란 “인식과 대상의 일치”(*Übereinstimmung unserer Erkenntnis mit ihrem Gegenstände*)라고 말하고 있다. 심지어는 Putnam 조차도 T-문장과 진리 대옹설을 동일시해서, T-문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자신이 말하는 바 (내재적) 실재론의 근거로 삼으려고 한 적이 있다(1978d, esp. 13ff; 한편, 1981b에서는 이런 근거는 완전히 포기하고 있음에 주의할 것, esp., 63). 이런 입장이 내부 진리 개념과 외부 진리 개념을 혼동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Kant와 Putnam(1978d)이 말하는 진리 대옹설은 기껏해야 내부 진리 개념에 관한 것이다.

한편, 5장에서 반-실재론적 진리 개념을 근거로 해서 T-문장(및 R-문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때 대상 개념은 이론-상대적인 것이 된다는 점을 밝혔다. Kant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인식과 대옹 관계를 가지는 대상은 초월적 대상(transcendental object)⁷⁵⁾ 아니라, 경험적 대상(empirical object)이다. 따라서 실재론의 특징이 될 수 있는 진리 대

75) 이 글에서는 Putnam에 따라서 “정신-독립적 대상”(mind-independent objects)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고, 혹은 “N-대상,” 또는 문맥상 엄밀성을 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 대상”(mind-independent objects)라고 한 곳도 있다.

옹설은 외부 진리 개념을 해명하는 것으로서의 진리 대옹설, 즉 초월적 대상과의 지시 관계를 기반으로 삼는 진리 대옹설이다. 그리고 경험적 대상을 전제로 한 진리 대옹설은 다른 외부 진리 개념, 반-실재론적 진리 개념을 전제해야 한다.

Kant 스스로는 진리의 문제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Putnam은 결국 Kant와 같은 형이상학적 입장을 정립하게 되었다. 이로써 Kant가 말하는 바, “Copernicus 적 전회”(Kopernikanische Wendung)의 의의를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진리를 초월적 대상과의 일치가 아니라 경험적 대상과의 일치에서 찾아야 한다는 Kant식 “진리 대옹설”은 바로 진리 정합설(coherence theory of truth) 또는 반-실재론적 진리 개념의 과도기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제 단순히 대상과의 일치를 주장한다고 해서 실재론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ex., Horwich 1982, 189)의 근거가 드러난 한편, 실재론과 관련된 진리 대옹설에서는 대상 개념이 초월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남은 문제는 진리 대옹설이 거론될 경우에 그것이 어떤 형태의 진리 대옹설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외부 진리 개념에 관한 진리 대옹설 즉 초월적 대상을 기반으로 한 진리 대옹설의 기능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주목함으로써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진리 대옹설의 기능은 언어 이해론에 있어야만 한다. 이 대옹 관계가 언어 이해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면, 다른 진리 개념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거론되는 대상은 초월적 대상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내부 진리 개념에 관한 진리 대옹설에서는 언어 이해론의 기반이 되는 다른 어떤 진리 개념이 있어야 하고, 이 외부 진리 개념의 형이상학적 특성을 내부 진리 개념이 이어받게 된다.

Davidson(1977)이 주장하듯 언어 이해론 즉 의미—이론이 경험과 직접 대면하는 것은 문장의 진리 차원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실재론을 특징지을 수 있는 진리 대옹설의 기능이 언어 이해론에서 찾아져야만 한다면, 대상과의 지시 관계를 거론하지 않고 진리 개념과 정당화 개념 사이의 관계에만 주목함으로써 실재론의 진리 개념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 보다 우선적인 문제라는 입장이 설득력 있는 것이 된다. (P2)에 관한 이 글의 입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소지를 여기서도 찾을 수 있겠다.

여태까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기 보다는 Putnam과 Dummett의 입장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논리적 위치를 드러내고, 이들의 입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 및 한계를 밝히는데 주력해 왔다. 마지막으로 대상 자체가 우리의 인식 작용 및 개념 체계의 산물이라는 Kant적 주장을 좀더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이 글을 맺으려고 한다.

N. Goodman(1955)은 과학적 방법(scientific method)을 형식적 규칙들(formal rules)로 환원하려는 시도를 논박하고, 이것들로는 환원될 수 없는 비형식적인 부분들이 형식적 규칙들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비형식적 합리성(informal rationality)은

어떤 대상 분류 방식이 보다 나은 법칙적 일반화(lawlike generalization)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관한 우리의 견해, 즉 기본 어휘 및 (여기서 대용하는) 대상 분류 방식의 선택으로서 나타난다. 귀납의 문제에 관한 Goodman의 고찰(green / grue의 예), 지시 관계 미확정성에 대한 Quine의 예(rabbit-stage / rabbit의 예) 및 지시 관계 미확정성에 관한 Putnam의 예(cat / cat*의 예)는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리게 한다.

이렇게 보면 세계 자체가 미리 어떤 대상들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 체계가 합리적인가에 관한 우리의 견해(our conception of rationality)에 의해서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계에 관한 이론이 주어지면 이 이론은 다시금 무엇이 합리적인가에 관한 우리의 견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수정된 합리성은 새로운 세계를 구성해낸다. “정신과 세계는 합심해서 정신과 세계를 만든다”(Putnam 1981b, xi).

Kant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입장에서도 “양면성을 띤 경험의 근거로서의 본체계”(a noumenal ground behind the dualities of experience ; Putnam 1982b, 163)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⁷⁶⁾ 이것은 말하자면 대상들로 분화된 구조를 지니고 있지 않는 미분화된 전체로서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이런 세계에 관한 옳은 이론이 단지 한 개 뿐이라면, 이 미분화된 세계 자체가 이 이론 및 대상 분류 방식을 결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이론의 유일성”(one true theory)을 근거로 한 새로운 형태의 실재론 즉 Peirce식 실재론(Peircean realism)이 대두하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 자체가 이미 어떤 대상들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다.

Kant가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의 경험적 본성(감성)과 합리적 본성(오성)이 바꿔가게 되면 지금과 다른 이론 체계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환기하는 데에 머무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형태의 실재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Putnam은 보다 급진적인 반--실재론자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Putnam이 경험적 실재론자로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은 Kant에 있어서보다 더욱 회의적이다.

첫째, 우리의 이론 체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인 불완전성을 지적할 수 있다. 비록 경험의 근거인 본체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진리치를 결정할 수 없는 문장이 여하튼 남아 있는 것이다.

둘째, Putnam은 Goodman의 결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대상 분류 방식(category system) 및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우리의 견해(our conception of rationality)가 우리의 관심(interests) 및 가치 체계(value system)의 산물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세째, 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다수의 기

76)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경험의 근거로서의 본체계는 이를 배반에 빠지지 않고서는 사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Putnam은 “그것에 대한 태도는 아마도 합리적 철학의 관심사이기보다는 종교의 관심사일 것”(1982b, 163)이라고 말한다.

술 체계가 있다는 다원론(pluralism)을 Putnam은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것들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그때 그때의 관심 및 가치에 따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참 고 문 헌

김 여수 : 1983, “진리와 실재론,” 철학 연구 제 18집.

Boyd, R.: 1980, “Materialism without reductionism: what physicalism does not entail,” in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Psychology*: Vol. I, ed. by N. Block (Methuen, 1980).

_____ : 1973, “Realism, underdetermination and a causal theory of evidence,” *Nous* 7.

Chomsky, N.: 1969, “Quine’s empirical assumptions,” rp. in: *Words and Objections*, ed. by D. Davidson and J. Hintikka (D. Reidel, 1969).

Davidson, D.: 1965, “Theories of meaning and learnable languages,” in: *Logic, Methodology and Philosophy of Science*, ed. by Y. Bar-Hillel (Amsterdam, 1965).

_____ : 1967, “Truth and meaning”, rp. in: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ed. by J. F. Rosenberg and C. Travis (Prentice-Hall, 1971).

_____ : 1969, “True to the facts”, *Journal of Philosophy* 66.

_____ : 1970, “Semantics for natural languages,” rp. in: *On Noam Chomsky*, ed. by G. Harman (Anchor Bks., 1974).

_____ : 1973, “On the very idea of a conceptual scheme,” rp. in: *Relativism: Cognitive and Moral*, ed. by M. Krausz and J. W. Meilan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2).

_____ : 1974, “Belief and the basis of meaning,” *Synthese* 27.

_____ : 1975, “Thought and talk”, in Guttenplan (1975).

_____ : 1976, “Reply to Foster,” in Evans and McDowell (1976).

_____ : 1977, “Reality without reference,” rp. in Platts (1980).

_____ : 1979, “The method of truth in metaphysics”, in: *Contemporary Perspectives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ed. by P.A. French et. al.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79).

Devitt, M.: 1980, “Critical notice of Putnam”, *Australian Journal of Philosophy* 58.

_____ : 1983a, “Dummett’s anti-realism,” *Journal of Philosophy* 80.

_____ : 1983b, “Realism and the renegade Putnam: A critical study of *Meaning and the Moral Sciences*,” *Nous* 17.

Dummett, M.: 1959, “Truth”, rp. in Dummett (1978a).

_____ : 1963, “Realism,” rp. in Dummett (1978a).

_____ : 1969, “The reality of the past,” rp. in Dummett (1978a).

- _____ : 1972, "Postscript to 'Truth,'" rp. in Dummett (1978a).
- _____ : 1973a, "The philosophical basis of intuitionistic logic," rp. in Dummett (1978a).
- _____ : 1973b, "The significance of Quine's indeterminacy thesis," rp. in Dummett (1978a).
- _____ : 1975, "What is a theory of meaning?," in Guttenplan (1975).
- _____ : 1976, "What is a theory of meaning? (II)," in Evans and McDowell (1976).
- _____ : 1978a, *Truth and Other Enigmas*, Harvard U.P.
- _____ : 1978b, "Preface," to Dummett (1978a).
- _____ : 1979a, "Common sense and physics," in McDonald (1979).
- _____ : 1979b, "What does the use do for the theory of meaning," in Margalit (1979).
- _____ : 1979c, "Comment to Putnam," in Margalit (1979).
- _____ : 1981a, *Frege: Philosophy of Language*, Duckworth, 2nd ed.
- _____ : 1981b, "Realism," ch. 20 of: *The Interpretation of Frege's Philosophy*, Harvard U.P..
- _____ : 1982, "Realism," Synthese 52.
- Evans, G. and J. McDowell (eds.): 1976, *Truth and Meaning*, Oxford U.P..
- Field, H.: 1972, "Tarski's theory of truth," rp. in Platts (1980).
- _____ : 1973, "Theory change and indeterminacy of reference," Journal of Philosophy 70.
- _____ : 1974, "Quine and the correspondence theory," Philosophical Review 83.
- _____ : 1982, "Realism and relativism," Journal of Philosophy 79.
- Friedman, M.: 1979, "Truth and confirmation," Journal of Philosophy 76.
- Glymour, C.: 1982, "Conceptual scheming or confessions of a metaphysical realist," Synthese 51.
- Goodman, N.: 1955, *Fact, Fiction and Forecast*, Bobbs-Merrill.
- _____ : 1978, *Ways of Worldmaking*, Hackett Publishing Company.
- Grandy, R.: 1973, "Reference, meaning and belief," Journal of Philosophy 70.
- Guttenplan, S. (ed.): 1975, *Mind and Language*, Oxford U.P..
- Haack, S.: 1978, *Philosophy of Logics*, Cambridge U.P..
- Harman, G.: 1973, *Thought*, Princeton U.P..
- _____ : 1982, "Metaphysical realism and moral relativism: reflections on Hilary Putnam's *Reason, Truth and History*," Journal of Philosophy 79.
- Hookway, C. and P. Pettit (eds.): 1978, *Action and Interpretation*, Cambridge U.P..
- Horwich, P.: 1982, "Three forms of realism," Synthese 51.
- Jardine, N.: 1978, "'Realistic' realism and the progress of science," in Hookway and Pettit (1978).
- Koethe, J.: 1979, "Putnam's argument against realism," Philosophical Review 88.
- Kripke, S. A.: 1981, "Wittgenstein on rules and private language," in: *Perspectives on the*

- Philosophy of Wittgenstein*, ed. by I. Block (Basil Blackwell, 1981).
- Leeds, S.: 1978, "Theories of reference and truth," *Erkenntnis* 13.
- Lewis, D.: 1974, "Radical interpretation," *Synthese* 23.
- _____: 1983, "Postscripts to 'Radical interpretation,'" in *Philosophical Papers*: Vol. I (Oxford U. P., 1983).
- McDonald, G. F. (ed.): 1979, *Perception and Identity*, Cornell U. P..
- McDowell, J.: 1976, "Truth conditions, bivalence and verificationism," in Evans and McDowell (1976).
- _____: 1978a, "On 'the reality of the past' ", in Hookway and Pettit (1978).
- _____: 1978b, "Physicalism and primitive denotation: Field on Tarski," rp. in Platts (1980).
- McGinn, C.: 1979, "An a priori argument for realism", *Journal of Philosophy* 76.
- _____: 1982, "Realist semantics and content ascription," *Synthese* 52.
- Margalit, A. (ed.): 1979, *Meaning and Use*, D. Reidel.
- Margolis, J.: 1980, "Cognitive issues in the realist-idealistic dispute," in: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Vol. V, ed. by P. A. French et. al.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0).
- Merrill, G. H.: 1980, "Three forms of realism",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17.
- Pearce, D. and V. Rantala: 1982a, "Realism and formal semantics," *Synthese* 52.
- _____: 1982b, "Realism and reference: some comments on Putnam," *Synthese* 52.
- Platts, M. (ed.): 1980, *Reference, Truth and Reality*, RKP.
- Putnam, H.: 1971, *Philosophy of Logic*, George Allen & Unwin.
- _____: 1974, "Language and reality," rp. in Putnam (1975a).
- _____: 1975a, *Mind, Language and Reality*, Cambridge U.P..
- _____: 1975b, "The refutation of conventionalism", rp. in Putnam (1975a).
- _____: 1975c, "The meaning of 'meaning'," rp. in Putnam (1975a).
- _____: 1978a, *Meaning and the Moral Sciences*, RKP.
- _____: 1978b, "Meaning and Knowledge," in Putnam (1978a).
- _____: 1978c, "Reference and understanding," in Putnam (1978a).
- _____: 1978d, "Realism and reason," in Putnam (1978a).
- _____: 1979a, "Reply to Dummett's comment," in Margalit (1978).
- _____: 1979b, "Comments to Kripke," in Margalit (1979).
- _____: 1979c, "Reflections on Goodman's *Ways of Worldmaking*," *Journal of Philosophy* 76.
- _____: 1980, "Models and reality," *Journal of Symbolic Logic* 45.
- _____: 1981a, "Philosophers and human understanding, in *Scientific Explanation*, ed. by A. F. Heath, Oxford U. P..
- _____: 1981b, *Reason, Truth and History*, Cambridge U. P..
- _____: 1982a, "Reply to two realists," *Journal of Philosophy* 79.
- _____: 1982b, "Why there is not a ready-made world," *Synthese* 51.

- _____ : 1982c, "Why reason cannot be naturalized," *Synthese* 52.
- _____ : 1982d, "Three kinds of scientific realism," *Philosophical Quarterly* 32.
- _____ : 1983 a *Realism and Reason*, Cambridge U. P..
- _____ : 1983b, "Introduction," to Putnam (1983a).
- _____ : 1983c, "Equivalence," in Putnam (1983a).
- _____ : 1983d, "Reference and truth," in Putnam (1983a).
- Quine, W. V. O.: 1960, *Word and Object*, MIT Press.
- _____ : 1969a, *Ontological Relativity and Other Essays*, Columbia U. P..
- _____ : 1969b, "Speaking of objects," in Quine (1969a).
- _____ : 1969c, "Ontological relativity," in Quine (1969a).
- _____ : 1969d, "Reply to Chomsky," in: *Words and Objections*, ed. by D. Davidson and J. Hintikka (D. Reidel, 1969).
- _____ : 1970, "On the reasons for indeterminacy of translation," *Journal of Philosophy* 67.
- _____ : 1978, "Goodman's *Ways of Worldmaking*," rp. in Quine (1981a).
- _____ : 1979, "Use and its place in meaning," in Margalit (1979).
- _____ : 1981a, *Theories and things*, Belknap Press.
- _____ : 1981b, "What price bivalence," *Journal of Philosophy* 78.
- _____ : 1981c, "Empirical contents," in Quine (1981a).
- Rasmussen, S. A. and J. Ravnkilde: 1982, "Realism and logic," *Synthese* 52.
- Rescher, N.: 1973, *The Coherence Theory of Truth*, Oxford U. P..
- Robert, B.: 1976, "Truth and assertibility," *Journal of Philosophy* 73.
- Rorty, R.: 1972, "The world well lost," *Journal of Philosophy* 69.
- _____ : 1976, "Realism and reference," *Monist* 59.
- Sintonen, M.: 1982, "Realism and understanding," *Synthese* 52.
- Smart, J. J. C.: 1963, *Philosophy and Scientific Realism*, RKP.
- _____ : 1982, "Metaphysical realism," *Analysis* 42.
- Smith, P.: 1981, *Realism and the Progress of Science*, Cambridge U. P..
- _____ : 1983, "Smart's argument for realism," *Analysis* 43.
- Stegmüller, W.: 1979, *Hauptstroemungen der Gegenwarts-philosophie*, Kroener, erweiterte Aufl., Bd II, Kapitel III.
- Strawson, P. F.: 1976, "Scruton and Wright on anti-realism etc.," *Proceedings of Aristotelian Society (New Series)* 77.
- van Fraassen, B. C.: 1976, "To save the phenomena," *Journal of Philosophy* 73.
- _____ : 1980, *Scientific Image*, Oxford U. P..
- _____ : 1982, "The charybdis of realism: epistemological implications of Bell's inequality," *Synthese* 52.
- Winnie, J. A.: 1967, "The implicit definition of theoretical terms," *British Journal of Philosophy of Science* 18.